

코스피	코스닥
2583.27 (+2.24)	727.41 (-7.18)
금리 (연율)	환율 (원/달러)
2.882 (-0.009)	1389.20 (+9.00)

누가 되든 ‘自國 우선주의’... K-산업 불확실성 가중

2024 美 대선 <上> 韓 영향은

오는 11월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이 27일 기준으로 9일 남짓 남으면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 대선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이벤트로, 동맹 관계가 강력한 한국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한국과 미국은 안보뿐 아니라 경제·사회 등에도 밀착돼 있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메트로경제신문>은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전개되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트럼프 vs 해리스 초박빙 마지막 여론조사서 ‘동률’

트럼프, 법인세 인하 공약 해리스, 공급망 재편 예고 등 韓외교·경제적 파장 불가피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자신한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고, 미국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법인세 6%포인트(p) 인하 공약을 재확인하며 한국을 언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통적 미국의 외교 정책이 아닌, ‘자국



길게 줄선 수시모집 응시생들

2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2025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장에서 응시생들이 길게 줄 서있다. /뉴스1

우선주의’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한국 경제는 타격을 입는다.

해리스 부통령이 행정부를 꾸린다 해도 한국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신(新) 냉전 체제에 포함된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외교전문 매체 ‘더 디플로맷’ 역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인 위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동률’ 기록한 트럼프와 해리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다. 최근 추세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시에 내대학이 25일(현지시간) 공개한 대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에서 두 후보의 전국 단위 지지율은 48% 대 48%로 동률을 기록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2016년, 더 과거로 가면 2000년 대선 당시 전국적으로 더 많은 표를 얻었지만 주요 선거인단이 걸린 경합주에서 밀려 패배한 바 있다. 문제는 이번에는 전국적인 판세도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가 비슷하다는 점이다.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주에서 앞서려면 전국 지지율에서 긍정적인 수치를 얻어야 한다.

해당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 이민 문제 ▲ 경제 ▲ 낙태권 등의

영역에서 양 후보가 얻은 지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민 문제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라는 답변이 54%였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43%다. 경제 분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 관리할 것’이라는 답변(52%)이 해리스 부통령(45%)보다 많았다. 낙태권 보호의 경우 55%대 40%로 해리스 부통령을 선택한 응답자가 더 많았다. 다만 유권자의 15%는 지지 후보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 정 반대 속성 지닌 트럼프와 해리스... 지지층 속성도 반대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부분에서 반대 속



메트로경제 ‘2024 뉴테크놀로지포럼’ 범용인공지능 시대, 공존법 모색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오는 11월 20일(수) 오후 ‘2024 뉴테크놀로지포럼’을 개최합니다.

인공지능(AI)이 가속화하면서 인간을 뛰어넘는 범용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과 공존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AI를 필두로 확장현실(XR),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 혁명을 이루는 기술들이 융합되며 초연결사회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거주환경과 노동주체는 물론 전반적인 사회구조가 변화하며 미래 생태계가 재편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은 ‘초현실사회로 : AGI가 재편하는 미래 생태계’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AGI 시대의 공존법을 모색하고 산업과 기업에 일궈줄 변화상을 공유합니다.

- ◆ 주 제 : 초현실사회로 : AGI가 재편하는 미래 생태계
- ◆ 일 시 : 2024년 11월 20일 오후 2시~5시
-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 등 록 :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www.metroseoul.co.kr)
- ◆ 문 의 : 2024 뉴테크놀로지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성을 지닌다. 해리스 부통령은 1946년생(78세)으로 고�령에 속 여성이며, 흑인 및 아시아(인도)계 미국인이다. 그리고 1964년생으로 60세대.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인 남성이며,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인재 제일’ 철학 굳건... 삼성, 하반기 GSAT 실시

(삼성직무적성검사)

주요 대기업 유일 신입공채 70년간 국내 채용혁신 이끌어 19개 계열사 1만명 안팎 채용

삼성이 이틀간 입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삼성직무적성검사(GSAT)를 실시했다. 최근 채용문이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은 국내 주요 대기업 중 유일하게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유지하고 있다.

27일 삼성그룹은 지난 26일부

터 이날까지 이틀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인 직무적성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직무적성검사는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주어진 상황을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로 오전, 오후로 나눠 관계사별로 진행했다. 삼성은 직무적성검사 이후 ▲ 면접 ▲ 채용 건강검진을 거쳐 신입사원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삼성직무적성검사를 실시한

관계사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 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E&A,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서울병원, 호텔신라, 제일기획, 에스원, 삼성웰스토리 등 19곳이다.

삼성그룹은 하반기 정확한 채용 인원은 밝히지 않았지만 삼성 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19

개 주요 계열사에서 1만명 안팎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지난 2022년 향후 5년간 8만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의 연간 신입사원 공채 규모는 1만 6000여명 정도로 올해도 상·하반기를 나눠 비슷한 규모를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신입사원 채용은 국내 5대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진행된다. 삼성의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

제 최근 대기업들은 신규 채용 계획을 추진하지 않고 경력을 채용하는 등 채용문을 좁히고 있다.

한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8월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대졸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7.5%는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것으로 답했다. 하반기 채용 계획을 수립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지난해 조사

보다 7.1%포인트(p) 증가한 42.5%로 늘었지만 이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이처럼 대기업 공채가 제도가 사라지고 있는 추세에도 삼성은 70년간 유지하고 있다.

‘인재제일(人材第一)’ 경영철학에 따라 1957년 국내 기업 최초로 공채 제도를 도입한 이래 능력 중심의 인사를 구현하고 있는 것. 1993년 국내 최초로 대졸 여성 신입사원 공채 제도를 신설하고, 1995년에는 입사 자격요건에서 학력을 제외하는 등 국내 채용 제도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한 총리, “배추 도매가격 내려 다행... 김장철 공급 최대한 지원” /사진 뉴스1
▲ 與, 북 러시아 파병에 “문 정부 ‘가짜 평화쇼’가 안보 위기 단초”

▲ 민주 “오물풍선, 올해만 30번째... 의도된 방안 아니면 당장 수 써야”
▲ 여권 친윤·친한 총돌 격화... “공멸 피해야” 우려 목소리 나와



▲ 취임 100일 맞은 조국... 약화한 야권 내 입지 확보 속도 /사진 뉴스1
▲ 두 번째 만남 앞둔 한동훈·이재명 ‘특검법·특검감찰관’ 쟁점되나

무주택자 위한 '디딤돌' 한도 축소 '저금리 대출' 수요로 부채 더 늘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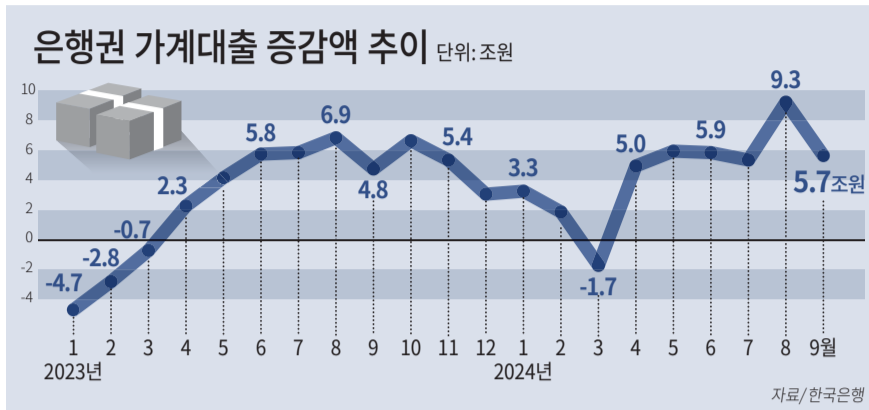
국토부, 수도권 한도 축소 검토
서울권 중심 대출 문의 급증
"1년정도 유예기간 충분히 뒤야
매매수요 급증하지 않을 것"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일부 지역에 한해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지만 저금리 대출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매매수요가 몰리면서 가계 부채가 되려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대상으로 디딤돌 대출의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살때 연 2~3%의 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정책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시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는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 최대 4억원을 빌려준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열흘사이 입장을 세차례 바꿨다. 지난 14일 디딤돌 대출



을 줄이겠다고 한 뒤 실수요자 반발에 부딪히자 18일 시행을 유보했다. 23일에는 수도권에 한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정책 대출 규제가 확실시되면서 단기간에 가계대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디딤돌 대출에 대한 유예기간 방침이 나오자 서울권 중심으로 매매 시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이자율을 묻는 문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내년쯤 주택을 매매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한도가 축소되기 전 대출을 받기 위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은행권에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전 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급증했다. 은행권 가계부채 증가폭은 지난 3월 -1조7000억원에서 4월 5조원으로 반등한 뒤 ▲5월 6조원 ▲6월 5조9000억원 ▲7월 5조4000억원으로 5~6조원대를 유지하다 8월 9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디딤돌 대출 규제 전 대출을 앞당겨 받으려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유예기간을 길게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디딤돌 대출은 서민 실수요 지원 상품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면 나머지 금액을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받아야 한다"며 "1년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혼란이 없도록 해야 매매수요가 급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여야, 오늘 '2+2 회동'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도입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출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출범하고 지난 총선 때 여야가 함께 합의한 공약과 민생법안들을 신속 처리한다.

여야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출범 회동을 갖는다. 여당에선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나온다. 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다.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는 지난 여야대표 회담의 합의 사항으로 지난 총선 때 여야가 함께 합의한 공약 정책과 민생법안들을 정쟁과 무관하게 민생법안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는 취지다.

미래먹거리·자산시장 밸류업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다룰 듯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법 상정' '반도체 특별법' 성과에도 관심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는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 창출, 자산시장 밸류업,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저출생 대응, 지역 격차 해소,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의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기에서 다루게 될 주요 법안들은 첫 번째 반도체, 인공지능(AI), 국가기간전력망 확충과 같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재도약하는 법안"이라며 "두 번째는 자본시장법과 같은 자산시장을 밸류업 하는 법안이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네 번째는 저출생에 대응하고,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법안이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입장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을 내고 ▲미래 산업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과 AI 산업,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 완화 방안 및 자영업·소상공인 지원방안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방안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 과제 ▲지구당 부활 등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티메프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와 공정거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입법 등을 살피기로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터업 프로젝트 법안'도 다룰 것이며, 쌀값 안정화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논의 하겠다"면서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에너지요금을 포함하는 등 양당이 필요성에 공감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가 공통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인다. 여당은 반도체 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투입해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기업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고, 야당은 세액 공제 대폭 확대 등 대규모 간접 지원이 핵심 골자인 특별법을 내놨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이니 만큼, 부처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태홍 기자 pth7285@

美에 국가채무 증가세 억제 정책 소개

최상목 부총리 워싱턴 D.C. 방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한국 정부는 국가채무의 증가세를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그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공고히 다지겠다고 했다.

27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현지시간)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의 마리 디론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만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력들을 소개했다. 역동 경제와 구조개혁 등이다.

특히, 정부의 확고한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했다. 그는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

정을 통해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디스 측은 한국의 높은 신용등급(Aa2)을 언급하고, 이는 한국 경제의 견조한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정지출조정을 실제로 이행하는 국가가 실제로는 많지 않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재정건전화 정책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의 세계 국제지수(WGBI) 편입도 이러한 노력들이 반영된 결과라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기업 맞춤 성장 코칭

능력개발 전문 주치의

우리기업에 맞는 교육훈련을 찾고 계신가요?
HRDoctor가 기업을 진단하고, 적합한 훈련을 처방해드립니다

다이렉트 기업진단 해보세요!

01 기업진단

02 훈련컨설팅

03 훈련과정 개발

04 훈련실시·피드백

현장 중심 IB·리테일 성장 주도... ESG 신경영 '구슬땀'

CEO 리서치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

NH투자증권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해 나선 '정통 증권맨'이 있다. 바로 윤병운 대표 이사 사장이다. NH투자증권은 윤 사장 취임 첫해인 올해, 전 사업부문에서 고른 성장세를 기록하며 상반기 호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NH투자증권은 윤 사장의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금융(IB)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리테일 부문에서도 WM(자산관리) 파트를 필두로 대내외적 성장을 이뤘다. NH투자증권 내부에서도 회사 성장의 근간에는 윤 사장의 전문성과 리더십이 주효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 실적으로 증명된 'IB 전문성'

NH투자증권이 공개한 2024년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의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5457억원, 순이익은 42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6%, 15.3% 증가했다.

윤 대표의 전문 분야인 기업금융(IB) 부문의 견조한 실적은 상반기 수익의 든든한 기반이 됐다.

IB부문 조직개편 통해 내실 강화 상반기 IB 관련 수익 2800억 달성 PB영업 등 자산관리 현장 직접 챙겨

그는 취임 직후 IB부문 조직개편을 실시하며 내실을 다졌다. 1993년 LG투자증권 시절 입사 후 커버리지 본부장, IB사업부 대표 등을 지낸 이력을 바탕으로 IB사업 강화에 나선 것이다.

그 결과 상반기 수수료 수익과 비시장성 자산 평가손익의 증가로 IB 관련 수익은 2800억원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주식발행시장(ECM)에서는 퀄리티스반도체, 에코앤드림 유상증자를 주관했고 아이씨티케이와 에이치브이엠 등의 기업공개(IPO)를 주선했다. 부채자본시장(DCM) 부문에서는 SK와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의 회사채 발행 주관을 맡아 선전했다.

NH투자증권으로서는 지난해 두산로보틱스, 에코프로머티, 파두 등 대규모 상장주관을 주관했기에 IPO 실적면에서는 다소 아쉬울 수 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시프트업, 에이치브이엠, 아

이씨티케이, 엔에이치스팩31호 등을 조그라든 IPO시장 환경에서 무사히 상장시켰다. 하반기에는 다본코리아, 루미르, 동방메디컬, 에스캠 등의 상장 주관을 맡아 IPO 시장에서 뒷심을 발휘할 예정이다.

◆ '리테일 강화' 위해 팔 걷어붙여...WM 주력

브로커리지(위탁매매) 부문도 상반기 호실적을 견인했다. 올해 상반기 NH투자증권의 브로커리지 수수료수익은 23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늘었다. 이 기간 일평균 거래대금은 21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했다.

윤 사장은 'IB 명가'의 위상을 이어가면서 리테일 강화를 통해 NH투자증권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중이다. 그는 '리테일 강자'로 평가받는 삼성증권 출신 박선학 CFO(경영전략본부장)를 직접 영입했다. 이는 NH투자증권이 외부인사를 CFO로 받아들인 첫 사례이기도 하다. 아울러 윤 사장은 박 CFO가 리테일 관련 신사업 기획에 주력할 수 있도록 경영전략본부 산하에 '재무관리 그룹장' 직책을 신설해 세무사 출신인 박정균 이사를 그룹장으로 앉히는 전략을 구사했다.

또한 윤 사장은 취임 이후 자산관리(WM) 현장을 직접 뛰어다닐 정도로 해당 분야에 공을 들였다. 고객자산가 대상 서비스를 확대하고 우수 프라이빗뱅크(PB)를 영입하는 등 WM 경쟁력 향상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NH투자증권은 올해 고객자산가 리



윤병운 대표이사 사장 프로필

- 1967년 충남 서산군 출생
- 1986년 서울 영등포고
- 1991년 한국외대중어중문학
- 2016년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AMP) 수료
- 1993년 LG투자증권 입사
- 1995년 LG투자증권 홍콩법인
- 2007년 우리투자증권 기업금융3팀장
- 2010년 우리투자증권 커버리지1그룹장
- 2012년 우리투자증권 커버리지본부장
- 2014년 NH투자증권 커버리지본부장
- 2018년 NH투자증권 IB1사업부 대표
- 2023년 NH투자증권 IB1,2사업부 총괄대표(부사장)
- 2024년 3월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테일 고객 서비스 확대를 위해 기존의 WM사업부와 PB사업부를 통합한 'P WM사업부'를 출범했다. PWM사업부의 출범과 함께 고객자산증대, 수익활성화, 시너지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자산 10억원 이상 고객을 확대하는 영업활동을 벌여왔다.

여기에 기존의 고객자산가 고객의 케어 서비스였던 '프리미어블루' 서비스를 기업 고객과 소속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NH프리미어블루' 서비스로 확대 개편한 부분도 WM 부문 강화에 기여했다. NH투자증권 측은 "올해 들어 상속증여, 연금에 대한 고객 상담요청이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했고, 자산관리 컨설팅 요청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표도 취임 직후 이재경 PWM사업부 대표와 함께 전국에 뻗어있는 NH투자증권 WM 지점을 모두 방문해 현장의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정통 IB맨'의 리테일 현장 행보는 두드러진 성과로 직결됐다.

상반기 기준 고객자산 규모는 353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10억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는 지난 6월 말 기준 1만4000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늘었고, 30억원 이상 고객은 500명이 이상(13.2%) 증가했다. 특히 '패밀리오피스 서비스'에 가입한 가문이 100개를 돌파했다. 가입가문 100개 돌파는 2021년 10월 출시 이후 2년 9개월만이며, 올해 상반기에만 36개의 가문이 가입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는 파트이기도 하다.

NH투자증권 PWM사업부 측은 "다

취임 이후 500억 규모 자사주 소각 올해 ESG 평가 'A'... 업계 최상위 "자본시장 선도 금융투자사 달성"

년간 과정 자체에 중점을 두어 발생하는 가치를 통해 고객과의 관계 형성과 유지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그 결과들을 만들고 있다"며 "향후에도 고자산고객에 대한 인적 서비스를 강화하고, 고객과의 관계 형성과 유지를 통해 고객자산을 보호하는 서비스를 계속 개발하고 확대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 농업 생태계 육성·주주환원 박차...ESG도 'A' 학점

윤병운 사장은 ESG 경영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NH투자증권은 한국ESG기준원(KCGS)이 주관하는 2024년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종합 'A'등급(2023년 기준)을 유지하며 업계 최상위권 성적을 뽐낸 것이 그 방증이다. 2022년에는 종합 'B+'등급에 그친 바 있다.

NH투자증권은 올해 들어 ESG 추진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기로 하고 경영지원부내에 ESG분부를 신설해 산하에 ESG추진부와 홍보실을 편제하기도 했다.

윤 사장은 글로벌공시기준을 반영한 '2024 지속가능통합보고서'를 통해 "범농협그룹으로서 ESG 사회적 책임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조직문화를 기반으로 유의미한 경영성과와 함께 자본시장 선도 금융투자사의 위상을 달성해 나가겠다"고 ESG 경영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NH투자증권은 범농협 차원에서 미래 농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농식품 산업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과 창업 교육을 지원하고, 애그테크(Ag-tech) 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농산물 인공지능(AI) 선별기, 농기계 자율주행 등의 농업 기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있다.

또한 NH투자증권은 올해 3월 윤 사장 취임과 함께 약 500억원 규모(약 417만 주)의 자사주를 소각했다. 이는 13년 만의 자사주 소각 조치다. NH투자증권은 향후에도 당기순이익에서 현금배당과 법정적립금을 차감한 재원의 50% 한도 내에서 자사주를 매입·소각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고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정부의 금융정책에 발맞춰 업계 선도 증권사로서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함께해요 4대 금지 캠페인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4가지 필수 안전수칙 준수와 함께!

안전장치 해제 금지
Do Not Disable Safety Devices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Do Not Operate Unfamiliar Machinery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Do Not Work Without Wearing Safety Gears

가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
Do Not Service Machinery While in Operation

국가별 4대 금지 캠페인 포스터 확인하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벤츠 팩토리56 전경

재활용 콘크리트부터 태양광까지... 친환경 품고 달린다

Q 르포 벤츠 '팩토리56'

‘혁신, 환경, 고성능 그리고 안전성.’ 메르세데스-벤츠가 추구하는 기업의 핵심 가치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키워드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이를 바탕으로 전기차 분야에서의 혁신을 통해 단순히 차량의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대의 소비자들, 특히 고령층이 주행 경험과 함께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요구하면서 메르세데스-벤츠도 지속가능한 미래 준비에 나서고 있다.

◆디지털·친환경 미래형 車 생산 공장 '팩토리 56'

23일(현지시간)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 위치한 진델핑겐의 '벤츠 팩토리 56'을 찾았다. 진델핑겐은 메르세데스-벤츠의 본거지인 슈투트가르트에서 차로 약 20여분(15km) 이동하면 만날 수 있는 작은 도시로 '명차의 고향'으로 불리고 있다.

혁신·친환경·휴먼, 미래 자동차 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혁신적 생산성 실현 디지털·자동화로 소음없는 공장 완성 근무자 위한 유연한 근무 체제 도입

1915년 다임러의 항공엔진 제작을 시작으로 가동한 진델핑겐 지역의 메르세데스-벤츠 공장은 올해로 설립 110년째를 맞는 벤츠 역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팩토리 56은 메르세데스-벤츠 공장 지역에서 2020년 문을 열었으며 22만㎡(축구장 30개 크기) 규모를 자랑한다. 이 공장은 1500명의 근무자가 매년 30만대의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30년까지 메르세데스-벤츠는 순수 전기차 분야에 총 400억 유로 규모의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해 전기차 아키텍처 및 차세대 배터리 개발, 새로운 충전 시스템 및 인프라의 구축, 전기차 생산 네트워크 확장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성능 WLAN과 5G 통신 네트워크를 토대로 전면 디지털 방식 운영을 통해 사람 중심의 친환경 공장으로서 탄생했다.

특히 팩토리 56의 외관에서부터 벤츠의 지속가능성을 느낄 수 있다. 공장의 콘



벤츠 진델핑겐 팩토리56에 있는 운반, 조립 로봇이 차량을 만들고 있다. /양성운 기자

크리트 외벽은 사상 최초로 재활용 콘크리트를 사용해 지속가능한 폐기물재활용에 중점을 뒀으며 지붕에는 1만2000여개의 모듈을 포함한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연간 전력 사용량의 30%를 생산하고 있다. 또 팩토리 56은 지붕 면적 40%를 녹지로 조성했고, 공장 옥상 공간 40% 가량은 옥상녹화를 적용해 오염된 물과 빗물을 분리하고 빗물을 보관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여기에 100%는 아니지만 공장 내에서는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페이퍼리스' 제도를 운용 중이다. 그 결과 매년 10톤의 종이를 절약할 수 있다는게 벤츠 관계자의 설명이다.

팩토리 56의 내부에 들어선 순간 '자동차 공장 맞아?'라는 느낌을 받았다. 일반 자동차 공장보다 달리 자동차 공장 특유의 유탄유 냄새는 물론 컨베이어벨트가 움직이는 요란한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 천장 곳곳에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따사로운 햇볕은 자동차 공장은 어둡고 답답하다는 선입견을 엮어줬다.

또 팩토리56은 조립뿐 아니라 부품 운반도 자동화로 진행된다. 400대의 자동무인운반차량(AGV)이 공장 곳곳에 깔린 레일을 통해 차량 제작에 필요한 자재를 바쁘게 운반하고 있었다. 로봇들은 사람 키 이상으로 높은 짐을 가득 싣고 공장 곳곳을 누비고 있었다.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지게차에 물건을 싣고 운반했지만 시스템 자동화를 통해 이처럼 탈바꿈한 것이다.

특히 팩토리 56에는 실시간 데이터를 이용해 메르세데스-벤츠 승용부문의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을 지원하는 디지털 생태계 MO360을 사상 최초로 적용했다. MO360은 전세계 30개 이상의 공장의 주요

생산 프로세스와 IT 시스템의 정보를 통합하고, 중요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들을 연결시킨다. 예를 들어 최적화된 KPI 기반의 생산 제어를 제공하며, 각 직원이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필요한 정보와 작업 지침을 제공한다. MO360의 주요 요소는 이미 전 세계 30개 공장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디지털화된 자동차 생산에서 최대한의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효율성과 품질 수단을 기능적 단위로 결합한다.

사람·지구 위한 스마트 공장 새 기준 글로벌 생산 실시간 통합관리 MO360 지속 가능성·효율성, 인더스트리 4.0 전기차 생산·첨단 배터리 개발 박차

이 공장의 자동화 포인트는 과거 새로운 차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2개월 전부터 생산 라인을 첨단 시설을 갖추면서 이제 며칠만에 준비할 수 있다고 벤츠 관계자는 설명했다.

◆첨단 기술적용해도 결국 인간 중심

팩토리 56은 최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인더스트리 4.0을 실현하면서도 그 중심에는 '사람'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다. 공장 관계자는 "메르세데스-벤츠는 직원의 전문성, 유연성, 높은 수준의 동기 부여가 성공의 핵심이라고 여기며,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해 근무 조직과 새로운 근무 시간 모델을 개발하고, 회사와 직원의 요구사항을 조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의 상황에 따른 교대제도에 대한 직원의 니즈를 잘 고려



벤츠 팩토리56 AGV가 차량 부품을 운반하고 있다.

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유연한 팀 운영을 위한 모델, 교대 근무 풀(Pool of Shift Employee)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 차량을 완성하는데 AI와 로봇의 역할도 크지만 최종테스트나 중요한 공정 과정에서는 사람의 손길이 중요하다. 최고 숙련 인력의 경우 레이저나 카메라가 놓칠 수 있는 스크래치 등을 완벽하게 잡아낸다.

벤츠 관계자는 "최고 제품인 마이바흐의 경우 고속인력이 동원되고 있다"며 "자동화이지만 최종조립이나 품질을 담보해야 하는 부분은 수작업으로 마무리한다"고 설명했다.

또 행잉오토컨베이어의 경우 로터가 90도까지 차량을 회전시켜 작업자가 허리를 숙이거나 팔을 높게 드는 등 불편한 자세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실제 공장 작업자들은 젊은 작업자부터 하얀 머리의 나이가 지긋한 기술공, 장애인 등이 불편함 없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한편 팩토리 56에서는 더 뉴 S-클래스 세단과 롱 휠베이스 버전 모델의 생산을 시작으로,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클래스와 럭셔리 전기 세단인 EQS도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조립되고 있다.

어른 날이 지나고 다시 **마음**입니다 **리모**

퇴직금으로 준비했던 꿈이 한순간에 사라진 영호 씨가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신한은 생활비부터 심리 및 법률 상담을 지원하며 희망으로 나아가는 어른들과 아름답게 동행합니다

어른도 기댈 곳이 필요하니까
아름다운 동행



[금융 사기로부터의 회복,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보이스피싱제로 사업은 피해 회복을 위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고 법률 및 심리 상담뿐만 아니라, 금융사기 인식 제고를 위해 피해 예방 교육을 추진하여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3년간 총 300억 원 규모 2만 2천여 명 지원)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정쟁국감, 예산안 심의까지 이어지나... “與野 각성해야” 비판

4개 상임위 제외한 국감 종료 오는 31일 내년 예산안 공청회 실시 野 ‘김건희 특별법’ 처리 공세에 尹, 예산안 시정연설 또 불참 가능성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가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의혹 제기로 뒤덮였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앞으로 이어질 여야의 예산 심의와 입법 논의의 과정도 여야의 정쟁으로 얼룩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보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회 국정감사는 종합감사를 끝으로 종료됐다.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오는 3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 후 11월 7~8일에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11월 11~12일엔 경제부처 부별 심사, 13~14일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 자리가 비어있다. /뉴스시스

18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하고 합의가 될 경우 다음달 29일에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할 계획이다.

국회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이지만, 해마다 여야가 예산안을 두고 다투며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경

우는 많지 않다. 국감 기간 내내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들춰내기에 집중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심지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설지에 대해 “국회 상황을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

도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상황”이 무엇이고 묻는 말에 “더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정치권은 민주당 등 야당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 범위를 더 넓은 ‘김건희 특별법’의 구체적인 처리 일정을 밝히며 공세에 나서는 가운데, 대통령이 국회를 찾는 것은 무리라는 대통령실의 판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안 대독 가능성까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에도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대통령으로 기록된 바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이런 무책임한 태도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의 의지가 있는지 깊은 의문을 자아낸다”

며 “국정은 어찌 되던 자리만 지키겠다는 자세가 아닐 수 없다. 국민과 국회에 대한 지독한 무시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23년과 2024년 시정연설은 맹탕이긴 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며 “이제는 그마저도 하지 않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남은 정기국회 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상속세 완화·반도체 산업 지원 등 민생·경제 법안 논의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야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2대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도 확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에 걸쳐 23개 입법과제를 선정해 국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대통령실 “초기 임부 유·사산 휴가, 5일 → 10일로 확대”

>> 1면 ‘누가 되든 自國 우선주의...’서 계속

저출생 반전을 위한 정책과제 발표 회복 돕기 위한 배우자 휴가도 신설 30일 인구비상대책회의서 발표 예정



부담을 경감시켜 유·사산을 예방하고 있으며, 만약 임신 초기 유·사산이 발생할 경우 여성의 건강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정책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27일 초기 임부의 유·사산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은 내년 1월부터 국제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사진)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저출생 반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유·사산 관련 여성 건강 회복 및 난임가정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지원 확대 ▲육아 관련 인식개선 용어 변경 등이다.

유혜미 수석은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통해 임신 초기 업무

유 수석은 “현재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에 유·사산 휴가 기간은 5일로, 유·사산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 추진하고, 아울러 배우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배우자 휴가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사산 휴가를 늘리고 배우자 휴가를 신설하는 것은 입법사항”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10월30일 인구비상대책회의

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유혜미 수석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일터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일·가정 양립 선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또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제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이를 원하는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유 수석은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지자체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돼있는데, 이 조치로 인해 난임 부부는 의료비 부담과 함께 더

큰 상실감을 느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난임 부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수석은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해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게 되면 정부의 비전과 중장기 임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국책연구기관과 정부가 합동으로 인구 전략 로드맵을 작업해 내년 출범과 동시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육아 휴직 대신 육아 몰입 기간, 경력 단절 여성 대신 경력 보유 여성 등 저출생 관련 용어 변경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예진 기자 syj@

격차 2%p 이하 초박빙 ‘샤이 트럼프’ 변수 될 듯

앵거스리드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18~34세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 이들 중 약 59%가 해리스를 지지하는데, 이들은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다. 또 흑인(67%)과 히스패닉(57%) 유권자들 사이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아시아계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대학 학위를 소지한 유권자들 중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다.

반면 같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0세 이상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받는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투표 의지가 높다. 백인 유권자들 중 약 56%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며, 대학 학위가 없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강세를 보인다. 또한 군인 출신 유권자들에게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 민주당, 이번에는 ‘샤이 트럼프’ 넘을 수 있을까... 초박빙에 승패예측 ‘불가’

관건은 지지 성향을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샤이 트럼프’가 판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2016년과 2020년 미국 대선을 보면 민주당 후보는 ‘샤이 트럼프’를 넘어야 한다.

미국대선의 주요 경합주는 애리조나·조지아·미시간·노스캐롤라이나·네바다·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 등 7곳이다. 최근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애리조나를 비롯한 4개 주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앞서고, 조지아를 비롯해 3개 주에서는 트럼프가 앞서다.

반면 리얼클리어폴리틱스 조사에서는 민주당 강세인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을 포함해 ‘러스트 벨트(오대호 인근 노후 공업지대)’ 지역까지 두 후보 격차는 모두 2% 포인트 이하 박빙이다. 어느 후보가 이길지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셈이다. /서예진 기자

청년면접관 만난 한동훈 “국민의힘은 이견 존중하고 허용”

‘2030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 참여 “성장 집중투자 성과로 복지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청년 면접관들 앞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차이점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견을 존중하고 허용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역면접x국민의힘, 2030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에서 이같이 말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청년 면접관 100명 중 60%가 비당원이었고, 40%만 국민의힘 당원이었다. 면접관의 연령은 2030세대가 전체의 87%였다.

한 대표는 사회자가 국민의힘이 다른 정당과의 차별점을 묻는 질문에 “제가 (대통령실 등에) 여러 이견을 많이 내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그것이 가능하다”며 “저에게 반대하는 것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조롱 섞인 말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낼 수 있다”며 “민주당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원내대표 혹은 주요 핵심 당직자를 상상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복지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거칠게 말해서 회사를 문 닫고 청산해서 나눠 주겠다는 식의 복지”라며 “25만원 주겠다”라고 하고 “5만원 더 주겠다”라는 것

이다. 국민의힘은 성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 성과로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정당이 만들고자 하는 사회에 대해 “국민의힘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를 둘 다 중시하는 정당”이라며 “2차 세계 대전 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우리뿐”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저는 아직 대한민국이 저희 세대가 겪었던 이상향할 수 있는 경제성장을 할 기회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AI(인공지능)와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복지를 위해 할 것이다. 그 재원으로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상향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대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공유사무실에서 열린 ‘역면접x국민의힘, 2030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 행사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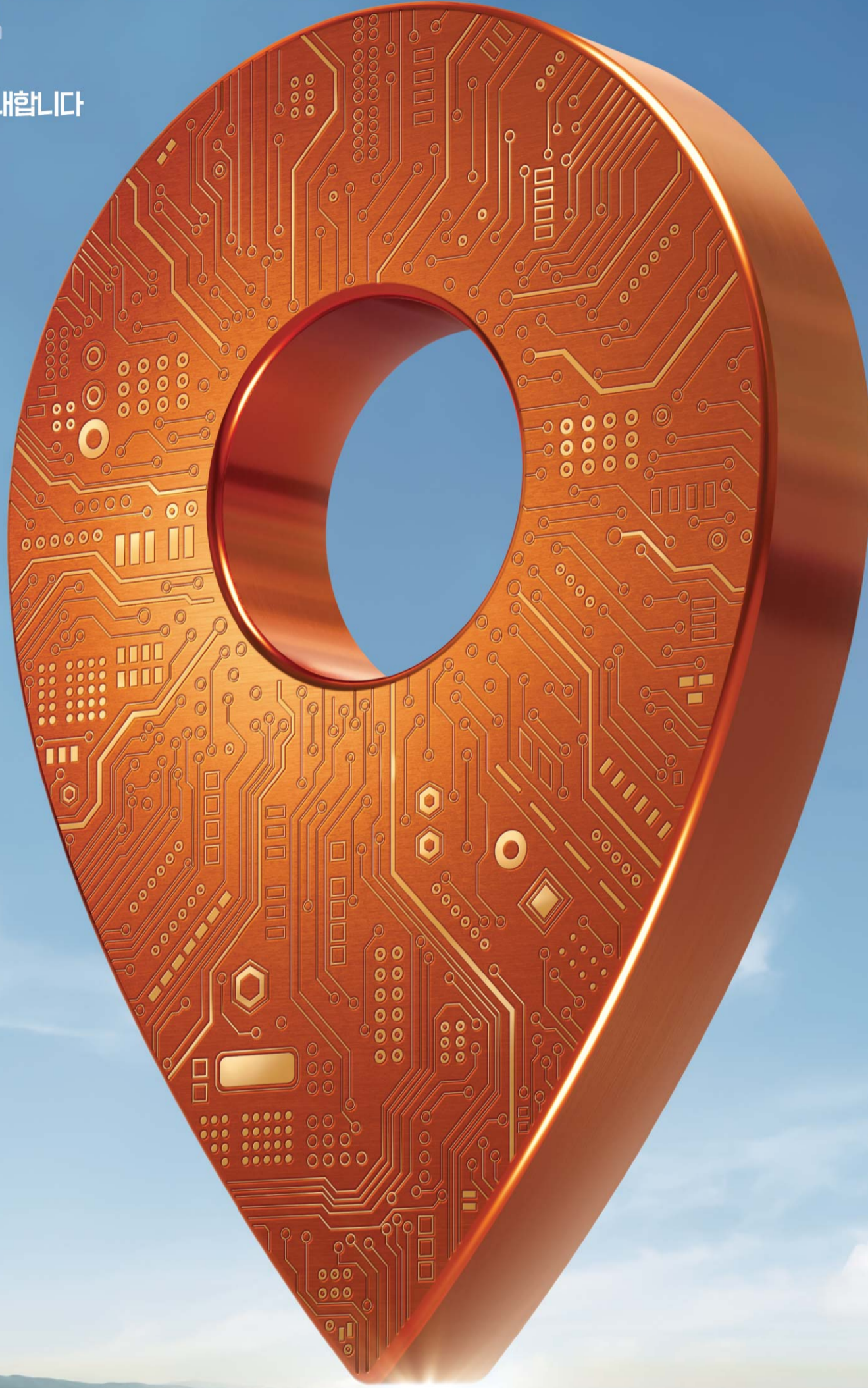
히 중요하고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AI가 만들 미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완성됩니다

SK하이닉스가 미래로 안내합니다



We Do Technology | SK hynix

보험사, 3분기도 호실적... 금리인하에 자본비율 역할 중요

삼성생명·화재 순익 5000억 돌파
전년동기비 각각 5%, 27.4% 증가
한화생명 순익 3187억 '흑자 유력'

금리하락에 키스 비율 하락 추세
보험업계, 손익 이외 요인들 중요

보험업계가 3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최근 금리 인하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약화가 우려되면서 손익 이외의 요인들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3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시현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보험 형제' 모두 순익 5000억원을 넘어서고 한화생명은 흑

자전환에 성공할 전망이다.

금융정보분석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3분기 연결기준 순익은 54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화재는 27.4% 증가한 547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3분기 적자를 냈던 한화생명의 올 3분기 순익은 별도 기준 3187억원으로 전망된다. 전년 동기 408억원 순손실에서 흑자전환이 유력하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DB손해보험의 3분기 순익은 44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9% 증가할 전망이다.

현대해상의 3분기 순익을 25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하지만 상반기 순익 8330억원과 합산할 경우

누적 3분기 순익은 1조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익 7860억원 대비 약 40%가량 증가한 수치다.

보험업계가 호실적을 이어갈 것이라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실적 시즌은 손익 이외의 요인들에 관심이 집중될 시기란 분석도 나온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신회계제도(IFRS17) 도입 2년차로 아직 불확실성의 구간에 속한 보험업종은 변수에 취약한 단계다"라며 "이번 분기에는 시장금리 하락에 대한 자산 및 부채의 평가액 변화가 보다 투명하게 드러나므로 자본의 금리 민감도를 비교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보험사들의 신지급여력제도

(K-ICS, 키스) 비율은 이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경과 조치를 적용한 보험사의 6월 키스 비율은 217.3%로 전 분기 223.6% 대비 6.3%포인트(p) 하락했다.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보험부채 증가 등에 따른 영향이다.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6월 말 경과조치 후 K-ICS 가용자본은 260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8000억원 감소했으나 요구자본은 119조8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 증가하면서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했다.

또한 업계 내부적으로도 최근 금리 인하로 인해 보험사의 건전성 약화가

지적받으면서 건전성의 기준인 지급여력비율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금리가 인하가 되고 당국의 규제가 내년에도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키스 비율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공산이 크다"며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자본 관련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핵심 지표로 보고 하반기 자본성 증권을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자본 조달시 조달 비용이 발생하고 자금이 묶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본 조달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카드 News

KB국민카드 국제브랜드카드 고객 해외서 대중교통 할인

KB국민카드가 국제브랜드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

◆ 해외 대중교통 50% 캐시백
KB국민카드는 'KB국민 가을맞이 풍성한 해외여행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연말까지 해외에서 KB국민 비자카드나 컨택트리스 대중교통 이용 시 50%를 돌려준다. 이어 일본 현지에서 미화 환산 금액 10달러 이상 이용 시 15% 캐시백을 제공한다.

트래블러스 체크카드도 200달러 이상 이용 시 '공항라운지 이용권' 혹은 '인천공항 식사권 2매' 중 1가지를 지급한다. 쿠폰은 200달러 이용 시점 기준 48시간 이내에 문자(LMS)를로 발송한다.

내달 30일까지 마스터카드 전용 클럽 페이지에서 액티비티 상품을 결제하면 최대 20%를 즉시 할인한다. 혜택은 최대 50달러까지 제공한다.

신한카드 흑백요리사 셰프 식당 이용금액 10% 캐시백

신한카드가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셰프의 식당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 흑·백수저 식당 29곳 섭외
신한카드는 흑백요리사 출연 셰프 식당 이용 금액의 10%를 캐시백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내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출생 연도 기준 1985~2005년생에게만 할인을 적용하며 신용카드로 결제해야한다.

신한 쏘페이의 마이샵 쿠폰에서 '흑백요리사 맛집' 쿠폰을 혜택 '온(ON)'하면 된다. 쿠폰은 선착순 10만명에게만 준다. 행사와 관련한 상세내용 및 유의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신한 쏘페이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첨단산업 특화단지 개발 호재... 강남권 접근성도 좋아

부동산 현장 르포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3차'
전용 70~80㎡ 전 세대 소형 구성
도보 35분거리 삼성D·산단 인접

지난 25일 찾아간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3차'의 견본주택. KTX 천안아산역 바로 옆에 위치해 첫날부터 대전·세종·충남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온 방문객들이 줄을 이었다.

포스코이앤씨가 선보인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3차'는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들어선다. 비수도권 기타 권역에 포함돼 전매제한이 없다.

만 19세 이상 대·세·총 거주자인 세대주세대원은 주택소유, 재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단,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한다. 전 세대가 소형으로 구성된 점도 주택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는 이유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9개동 규모로 총 1163가구가 들어선다. 이 중 975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왔다. 타입별 가구수는 ▲70㎡A 476가구 ▲70㎡B 154가구 ▲70㎡C 97가구 ▲84㎡A 100가구 ▲84㎡B 74가구 ▲84㎡C 74가구다.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 3차'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유닛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 3차' 현장. /전지원 기자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의 올해 8월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약 2억원으로 전년 대비 8% 올랐다. 같은 기간 충남 전체 아파트 평균 매매가 상승률이 2.6%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아산시는 산업부의 국가 첨단산업전략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로 선정된 곳이다. 이를 통해 향후 약 40조원의 투자유치와 함께 3만여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견본주택을 방문한 A씨(70·세종특별자치시)는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에 들어서는 대규모 신축단지이기 때문에 단지 가치가 앞으로 더 높아질 것 같다"고 했다.

인근에는 갤러리아 센터시티, 트레이더스 천안아산점 등 다양한 편의시

설과 용곡공원, 지산공원, 곡교천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단지 바로 앞에는 탕정8초등학교와 탕정4중학교(2027년 4월 개교 예정, 가칭)가 들어서 있는 것이 확정됐다.

서울 강남권으로의 접근성도 좋다는 분석이다. KTX·SRT 천안아산역이 버스로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이를 이용해 수서역까지는 3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다. 단지 앞에 일반산업단지, 도보 35분 거리에 삼성디스플레이단지가 있어 직주근접을 희망하는 수요자들의 긍정적인 반응도 기대된다.

다만 가격은 아쉽다는 의견이다. 예비청약자 B씨는(50·충남 천안시)는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 1차'의 경우 탕정역이 더 가까이에 있는데 분양가

는 전용 84㎡A 최고가가 4억7280만원으로 이단지보다 낮았다"며 "탕정 자체가 인기 있는 지역이기에 계속 청약을 넣고 있지만 이 단지는 위치나 가격에 애매하다"고 말했다.

분양가는 ▲70㎡A 4억1050만~4억2300만원 ▲70㎡B 4억440만~4억2900만원 ▲70㎡C 4억940만~4억2600만원 ▲84㎡A 5억200만~5억2200만원 ▲84㎡B 5억900만~5억2900만원 ▲84㎡C 4억9970만~5억2000만원선이다.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 3차의 청약 일정은 오는 11월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6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아파트 당첨자는 12일 발표하며, 계약은 25~2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전지원 기자 jiw13@

"차별화된 경쟁력, 고객 최우선 가치 실천"

BNK부산은행 창립 57주년 기념식
방성빈 "초일류 글로벌 은행 도약"

BNK부산은행은 지난 25일 부산 본점 대강당에서 임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 부산은행은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탄탄한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표어로 제시했다.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특화 산업 연계' 등을 통해 동반 성장의 기틀을 마련

하고, 아울러 지역 금융의 역할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또한 효율성 중심의 업무 추진을 위해 AI 혁신 기술을 도입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한 대면 채널의 혁신'과 '비대면 채널의 유기적 연결' 등 기존의 틀을 깨는 '과격적 혁신'도 함께 추진한다.

이어 고객 신뢰 강화를 위해 '고객 최우선의 바른 금융'의 실천을 강조하고, 고객 이해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한층 더 엄격한 내부통제와 윤리의식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BNK부산은행 57주년 창립기념식에서 방성빈 은행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BNK부산은행

방성빈 BNK부산은행 은행장은 "부산은행이 57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고객의 신뢰와 임직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변화와 혁신, 고객 최우선의 가치를 실현해 지역을 넘어선 초일류 글로벌 은행으로 도약하자"라고 포부를 밝혔다.

/안승진 기자 asj1231@

현대차그룹 '현대 N x 토요타 가주 레이싱 페스티벌'

韓·日 대표 자동차기업, 레이싱 모터스포츠 활성화 맞손

현대차 'RN24' 등 경주차 전시 정의선 회장, 현장서 고객 소용 티켓 판매 수익금 전액 기부

글로벌 자동차 시장 1위 토요타와 3위 현대차그룹이 수소, 로보틱스 등에서 협업 관계를 구축한 가운데, 레이싱 모터스포츠를 띄우기 위해 협업했다.

현대차는 모터스포츠 문화 발전과 모터스포츠에 대한 고객들의 공감 확대를 위해 토요타와 함께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현대 N x 토요타 가주 레이싱 페스티벌'을 27일 개최했다.

이번 '현대 N x 토요타 가주 레이싱 페스티벌'은 국제 모터스포츠 대회 중 하나인 월드 랠리 챔피언십(WRC)에 참여 중인 고성능 브랜드 현대 N과 토요타 가주 레이싱이 손잡고 양사의 고성능 양산차와 경주차를 선보이는 자리다.

페스티벌에서는 ▲고난이도 주행 버퍼폼스를 선보이는 '쇼런' ▲현대 N과 토요타 GR 차량을 보유한 고객들이 자신의 차량으로 트랙을 주행하는 '트랙 데이' ▲WRC 경주차에 고객이 동승해



'현대 N x 토요타 가주 레이싱 페스티벌' 현장에서 정의선 회장과의 토요타 아키오 회장이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체험하는 '택시 드라이빙' 등의 프로그램이 선보였다.

현대차와 토요타는 이번 행사에서 브랜드 전시 부스를 운영하며 각 사의 차세대 친환경 고성능차 및 고성능 라인업, 경주차 등을 관람객에게 내놨다.

현대 N 부스에는 지난 25일 최초로 공개된 롤링랩 차량인 'RN24'를 전시했다. 현대차가 WRC에 처음 참가한 이래 10년간 축적된 기술 노하우와 아이

오닉 5의 고성능 전기 PE 시스템, 차세대 차체 제어 기술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고성능 모델이다.

토요타 가주 레이싱 부스에는 액체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콘셉트카 ▲O RC 루키 GR코롤라 H2 콘셉트 ▲GR 수프라 ▲GR86 등 고성능 차량이 전시됐다. 수소엔진차 'AE86 H2 콘셉트'를 전시하며 토요타의 과거부터 미래 비전까지 제시했다.

현대차는 정의선 회장의 의지로 지난 2014년부터 WRC에 출전하는 등 수많은 모터스포츠 경기에 참가해 경험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고성능 차량용 서스펜션, 브레이크 시스템 등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과거부터 축적해온 기술을 발전시키며 '고성능 친환경차'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현대차와 토요타는 모터스포츠 문화 발전 및 고객 공감 확대를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양사 WRC 드라이버들 뿐만 아니라 정의선 회장도 아키오 회장도 직접 행사에 참가해 고객들과 차량 퍼레이드 등을 함께 했다.

정 회장은 "올해 초 아키오 회장을 만나 레이싱을 사랑하는 두 명이서 뭔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논의를 통해 이날 자리(현대 N x 토요타 가주 레이싱 페스티벌)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키오 회장은 인터스트리(산업) 내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많이 배우려고 한다"며 "오늘 (아키오 회장의) 주행 실력을 보니 더욱 신뢰가 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대차는 'N' 브랜드를 통해 고성능 차량을 선보이고 있다"며 "“심장이 뛰는 차”를 운전하고 싶은 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티켓 예매 사이트가 개설되고 8일만에 관람석 전석이 매진되는 등 모터스포츠 팬들을 비롯한 수많은 고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현대차와 토요타는 국내 자동차 문화 발전 및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티켓 판매 수익금 전액을 대한자동차경주협회(KARA)에 기부하기로 했다.

/박대성기자 iunmids@metroseoul.co.kr



'현대 N x 토요타 가주 레이싱 페스티벌' 현대 N 부스 내 전시된 롤링랩 'RN24' /현대차그룹

K-조선, 악성 저가물량 해소 하반기 수익성 개선 빨라진다

고수익 선종 매출 비중 확대 조선3사, 3분기 호실적 기대감

국내 조선업계가 수주 호황을 이어가며 조선3사(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화오션)가 나란히 3분기 호실적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을 지속함으로써 실적 상승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조 3229억원, 1199억원이다. 전년 대비 매출은 15%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58% 상승한 수치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친환경 컨테이너선 등 고수익 선종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된 결과로 분석된다.

HD한국조선해양과 한화오션 또한 견조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평가된다.

업계는 조선업계의 실적 개선은 과거 수주한 악성 저가 물량을 완전히 해소한 결과로 보고 있다. 앞서 조선업계는 2010년대 들어 불황의 터널을 겪었다. 지난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촉발한 금융위기 이후 수요가 급감한 가운데 동안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해양플랜트 등의 수익성 다변화를 모색했으나 유가 급락의 직격탄을 맞으며 적자를 피할 수 없었다. 이에 일감 확보를 위해 조선사들은 저가 수주 싸움을 이어간 바 있다.

이후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해 LNG선 등 친환경 선박 수요가 늘어나며 국내 조선업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지난 2021년부터 조선 3사는 연간 선박 수주 목표량을 채우고 시작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갔다.

수주행진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HD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총 169척, 188

억 4000만달러(25조 6789억원)를 수주해 연간 목표인 135억달러(18조 3978억원)의 139.5%를 초과 달성한 상황이다.

삼성중공업은 현재까지 24척을 수주하며 연간 수주 목표액 97억달러의 56%인 54억달러를 채웠다. 회사 측은 친환경 컨테이너선, LNG운반선, FLNG 등 다수 프로젝트의 수주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연간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화오션은 올해부터 연간 수주 목표액을 밝히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친환경 선박서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사들이 지속적으로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에 집중하며 긍정적인 실적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을 통해 시장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이용수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왼쪽부터), 루이스 루세로 아르헨티나 광업 차관, 김광복 포스코 아르헨티나 법인장, 구스타보 사멘즈 살타 주지사, 포스코홀딩스 김준형 이차전지소재총괄, 라울 하릴 카타마르카 주지사, 카를로스 사드리 후후이 주지사, 포스코이앤씨 이철무 플랜트사업본부장이 24일(현지 시각) 아르헨티나 살타 구에메스에서 개최된 수산화리튬 공장 준공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아르헨티나 리튬 공장 준공

연산 2.5만t 규모... 소재보국 실현

포스코홀딩스가 해외 리튬사업을 통한 소재보국을 이뤄냈다.

포스코홀딩스는 국내 기업 최초로 해외 리튬 염호에서 이차전지소재용 수산화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준공해 원료 분야에 대한 꾸준한 투자 속 국내 공급망 안정화와 소재 분야 글로벌 초일류 기업 도약을 향한 결실을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24일(현지 시각) 아르헨티나 살타 구에메스에서 연산 2만 5000톤 규모의 수산화리튬 공장 준공식을 열었다. 이는 포스코홀딩스가 계획중인 총 3단계 프로젝트 중 첫 단계의 준공으로, 100% 광권을 보유한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의 염수를 활용하며, 고유의 리튬 추출 기술을 적용했다.

수산화리튬은 전기차 등에 탑재되는 이차전지소재의 핵심인 양극재의 주원료로 '리튬-양극재-리사이클'로 이어지는 포스코그룹 이차전지소재사업 풀밸류체인의 시작점이자 사업 경쟁력의 한 축이다. 포스코그룹은 해외 염호와

광산에 대한 소유권과 지분을 통해 염수·광석리튬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내·외 사업장에서 수산화리튬을 생산해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한편, 미국의 IRA 등 다양한 조건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이차전지소재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글로벌 리튬 공급사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아르헨티나 현지 염수리튬 공장 준공으로 전남 광양 울촌산단에 기동중인 포스코필라리튬솔루션의 2만 1500톤 규모 광석리튬 기반 수산화리튬 공장을 포함해 염수와 광석자원 모두에서 이차전지소재용 수산화리튬 총 4만 6500톤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됐다.

김준형 포스코홀딩스 이차전지소재총괄은 기념사에서 "이번 리튬 공장 준공은 포스코그룹이 아르헨티나에서 고부가가치 리튬을 생산하는 중요한 첫 걸음으로, 후속 프로젝트들을 통해 포스코그룹은 글로벌 리튬 산업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제주항공, ESG 평가 2년 연속 통합 'A'

"도전·혁신 가치 아래 ESG 활동"

제주항공이 전사적인 환경 부문 리스크 최소화 노력을 인정받았다.

제주항공은 '2024 ESG 평가'에서 2년 연속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ESG기준원 발표에 따르면 제주

항공은 ▲환경 부문 A+ ▲사회 부문 A+ ▲지배구조 부문 B+를 받아 지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통합 등급 A등급을 획득했다.

제주항공은 항공기의 탄소 배출량과 연료 사용량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비행'을 위해 연료 탑재량 분석 및 수하물 무게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등 데이터

기반 운항 전략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현재 운항 중인 항공기보다 연료 효율성이 15~20% 높은 차세대 항공기 B727-8의 비중을 2026년 40%까지 늘릴 계획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대한민국 항공 여행을 바꾼 제주항공만의 '도전'과 '혁신'의 가치 아래, 환경과 사회에 산재해 있는 난제들을 진정성 있는 ESG 활동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성 기자

“식상해진 ‘로지’ 외면”... 스토리 있는 ‘페르소나 AI’ 뜬다

AI 인플루언서, 시장 반응 냉담

스토리텔링 부족·신선함 상실 원인
외모 중심·정체성 부족 등 AI 한계
개인화된 경험 제공 AI로 시장 변화
인간적 상호작용·역할 중심 AI 초점

인플루언서 인공지능(AI) 휴먼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다.

AI 휴먼은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한 AI 캐릭터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3D 인간 형상에 AI 기술을 입혀 만든 존재다. 인플루언서 AI 휴먼은 SNS 인플루언서로서 모델활동을 전개하는 AI 휴먼들을 뜻한다. 한때 인간 모델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며 큰 인기를 구가했지만 현재는 미국의 릴 미켈라(Lil miq uela) 등 일부 AI 휴먼을 제외한 대부분의 모델이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27일 ‘메트로 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전후로 국내에서 활동을 시작한 인플루언서 AI 휴먼 대다수가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때 200여 명에 이르렀으나 현재는 롯데홈쇼핑의 ‘루시’ 정도만이 간간히 활동을



AI 휴먼 로지의 모습. 로지는 2021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인플루언서 AI 휴먼으로 인스타그램에서 17만 5000여 명의 팔로워를 확보 중이지만 최근 별다른 광고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로지 인스타그램

전개하고 있다.

인플루언서 AI 휴먼은 지난 2021~2022년 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타고 단기간에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확보했다. 실존 인물과 달리 체력과 물리적 한계가 없는 것은 물론 다양한 논란에서 자유로워 실제 인간 모델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성과도 있었다. 사이더스 스튜디오 엑스가 제작한 AI 휴먼 로지는

반얀트리 호텔, 쉐보레 전기차 등 광고에 출연해 2021년 한 해 동안 10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

반면 2024년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모델은 거의 없다. 과거와 달리 영상 광고 등에 출연 중인 AI 휴먼은 없으며 대부분 화보 작업에 그친다.

그나마 AI 휴먼 활동을 펼치며 시도 중인 곳은 롯데홈쇼핑이 있지만 이마저도 과거처럼 휴먼 AI를 광고 모델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과는 다소 멀어졌다. 롯데

홈쇼핑은 여전히 자체 모델 AI 휴먼 루시를 활용한 패션프로그램 ‘루시톡라이브’를 진행 중이지만 과거와 달리 공격적인 모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대신 지난달 ‘스페인·포르투갈9일’ 패키지 여행상품 판매에서 최유나 쇼호스트의 얼굴과 동작 영상에 AI 이미지 생성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쇼호스트를 시도했다.

김연수 롯데홈쇼핑 CX부문장은 “향후 보다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선보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인플루언서 AI 휴먼이 실제 인간 모델과는 달리 외모 외 스토리텔링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데다 광고 모델 활동 외 제2의 콘텐츠 활동이 부족해 시장의 외면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2021~2022년은 AI 휴먼이라는 신기술만으로도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었지만 현재 AI 휴먼 기술은 다소 식상해진 과거의 기술이 됐다”며 “인스타그램 활동 외 별다른 스토리를 갖지 못하는 이들은 외모가 풍기는 이미지만으로 고객을 설득해야 하는데, 이미 신기술의 참신함이 사라진 이상 인간 모델보다 나은 점을 찾기 어렵

다”고 설명했다. 인플루언서 AI 휴먼이 급격히 사양길을 걷고 있지만 AI 휴먼 시장 자체가 침체 중인 것만은 아니다.

2022년 11월을 기점으로 시작한 생성형 AI 이후 고도화된 페르소나 AI는 계속해서 성장 중이다. ‘페르소나 AI’란 이용자와 상호작용에서 일정한 성격, 역할, 스타일 등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챗봇형 AI 휴먼이다. 미국 대형 벤처투자사 앤더슨 호로위츠 조사결과에 따르면 페르소나 AI를 서비스하는 ‘캐릭터.AI(Character.AI)’가 지난 8월 인기를 얻은 앱 2위를 차지했다.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 또한 주요 음악 방송에서 1위를 차지하며 지난달에는 ‘더팩트 뮤직 어워드’에서 상을 수상하는 등 인기기도를 달리고 있다.

업계 또다른 관계자는 “AI 휴먼이라고 하는 큰 시장 내에서 광고 등을 수행하는 모델형 AI 휴먼이 각광받지 못하는 것뿐, 현재 AI 휴먼은 TTS(음성합성 기술)와 실존인물과의 대화와 차이가 없는 생성형 AI의 발달로 어느때보다도 빠르게 성장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LG, ‘소프트 V2X’로 교통사고 예방 앞장

베를린서 열린 5GAA 회의 참가
자체 개발 교통안전 솔루션 공개
도로 상황·교통신호 등 정보 제공

LG전자가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기반으로 성장 돌파구를 마련한다. 교통사고를 크게 감축할 수 있는 자체 교통안전 통합 솔루션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독일 베를린에서 21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진행된 5G 오토모티브 어소시에이션(5GAA) 회의에 참가해 소프트 V2X 등 교통안전 통합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27일 밝혔다.

소프트 V2X는 V2X 기술을 활용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LG전자가 독자 개발한 5G V2X 교통안전 솔루션이다.

보행자 및 차량의 위치, 방향, 속도 등의 데이터를 익명화해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차량과 보행자 간 상호 공유 및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위험 가능성을 알려준다.

특히 소프트 V2X는 도로에 있는 스마트 RSU(노변기지국)와 연동해 인근 도로 상황이나 교통신호 등 안전 운행에 필요한 교통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자율주행차량 및 배송 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에도 탑재가 가능하다.

5GAA는 글로벌 차량 통신 연합체로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완성차 업체와 보쉬, 콘티넨탈 등 자동차 부품 업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LG전자는 2016년 5GAA 설립 당시 참여한 창립 멤버다.

LG전자는 이번 회의 기간 중 베를린 시내 도로에서 소프트 V2X를 활용한 교통안전 통합 솔루션을 시연했다.

베를린 내 5.6km 길이의 도로를 오가는 차량과 셔틀버스에 탄 탑승객들은 다양한 LG전자의 V2X 기술을 체험했



LG전자 CTO부문 C&M표준연구소 김학성 연구위원이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5GAA에서 ‘V2X의 진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단계’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LG전자의 V2X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다. 주행 중인 차량이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를 지날 때 보행자나 자전거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면 교차로에 설치된 스마트 RSU나 Soft V2X 앱 단말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Soft V2X 솔루션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알려 감속 등 사고 회피를 유도한다.

도로 내 작업자가 있는 상황, 응급 차량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차량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실시간 알림을 제공한다.

회의 참석자와 전문가들은 직접 이 솔루션을 체험했다. 이들은 LG전자의 우수한 교통안전 통합 솔루션의 효과와 완성도를 호평했다.

LG전자가 이번에 선보인 교통안전 통합 솔루션은 유럽에서 주로 활용하는 ETSI(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 V2X 표준에 호환되는 기술을 적용한 점이 특징이다. LG전자는 지난해 10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5GAA 회의에서는 북미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SAE(미국자동차기술자협회) V2X 표준을 적용한 소프트 V2X를 선보였다.

아울러 LG전자는 5GAA 회원사와 완성차업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업체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추가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김학성 LG전자 CTO부문 C&M표준연구소 연구위원이 ‘V2X의 진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단계’를 주제로 발표하며 현재 진행 중인 실증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V2X 기술의 궁극적인 진화 방향성을 제시했다.

LG전자는 서울시 강서구 소재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3곳과 강원도 강릉시 청산면 일대, 세종시 나성동 소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역별로 특화된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 송도에서도 민-관 협력 체험형 서비스 실증 사업을 시작했다.

세종시 실증 사업에서는 사업 개시 이후 6개월 간 위험 상황(차량 간 사고 위험, 차량-보행자 간 사고 위험 등)이 1143회 발생했다. 상황에 대한 실시간 알림을 받은 보행자 및 운전자의 80.1%가 이동 방향을 바꾸거나 속도를 줄였다. 또 1만3051건으로 가장 많은 위험 상황 알림이 발생한 서울시 실증 사업에서는 이용자의 73.1%가 반응을 보였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공항 체크인하고, 엔진 포토존에서 찰칵!”

삼성, ‘갤럭시 탭 S10 시리즈’ 팝업

삼성전자가 ‘갤럭시 탭 S10 시리즈’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 3일까지 인기 트립웨어 브랜드 ‘로우로우(RAWROW)’와 함께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로우로우 월드와이드 서울’에서 진행되는 팝업 스토어는 여행을 주제로 체험 공간이 구성됐다. 방문객들은 공항처럼 꾸며진 팝업 스토어에서 마치 여행을 떠나는 기분으로 ‘갤럭시 탭 S10 시리즈’의 대화면과 S펜, 갤럭시 AI 기능 등 제품 특장점을 체험할 수 있다.

공항 체크인(Check-in) 카운터 콘셉트로 꾸며진 체험존에서는 로우로우 캐리어 안에 ‘갤럭시 탭 S10 시리즈’와 여러 소품을 더해 10kg에 가깝게 담아내는 미션을 진행한다.

공항 검색대(Security) 존에서는 최근 2세대에서 유행하는 ‘검색대 트레이 꾸미기’ 체험을 하고 인증샷을 촬영할 수 있다. 비행기 제트 엔진 모형과 갤럭시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갤럭시 탭 S10 시리즈 X 로우로우 팝업 스토어’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방문객들이 인증샷을 촬영하고 있다. /삼성전자

시 탭 S10 시리즈’로 꾸며진 대형 포토존에서는 색다른 사진도 남길 수 있다.

삼성전자는 팝업 스토어에서 체험 미션을 모두 완료한 방문객들에게 쿨션 키링과 로우로우 제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추가 2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또한 SNS 해시태그 이벤트에 참여한 방문객에게 인증 사진이 인쇄된 티셔츠 또는 미니 파우치 등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팝업 스토어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구남영 기자

LGU+, ESG 평가서 종합 A등급 획득

사회부문 ‘A+’, 한 단계 상승

LG유플러스가 한국ESG기준원이 발표한 2024년 ESG 평가에서 종합 A(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27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한국ESG기준원의 ESG 평가는 기업의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 분야의 리스크와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으로, LG유플러스는 종합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사회부문 ‘A+

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했다. LG유플러스는 연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핵심 주제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를 선정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이버 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소개하기도 했다.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도 조명받았다. LG유플러스는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사용하기 위해 대전 R&D센터에 1000kW급 자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했다. /구남영 기자



칠레 최정상 아이콘 와인 몬테스

국내외 실적시즌 기대감 ‘쑥’... 美 대선 불확실성은 ‘여전’

코스피, 실적 불확실성 선반영 중
이달 말 불안심리 완화 시작 전망
금리상승·美-中 분쟁 우려 변수
美 핵심경제지표 양호 전망 ‘긍정적’

미국빅테크그룹 ‘매그니피센트7’ (M7)의 실적 발표와 미국 핵심 경제지표들의 양호한 수치가 기대되면서 국내 증시의 반등 기회가 엿보이고 있다. 다만 여전히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외국인 수급 불안 등이 하락요인으로 꼽힌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21~25일) 코스피는 0.41% 하락한 2583.27에 거래가 종료됐다. 해당 기간 코스피에서 기관과 개인은 각 3754억원, 5955억원 순매수했으며, 외국인은 1조1618억원을 순매도했다. 특히 외국인은 28거래일 연속으로 삼성전자를 순매도 중인 상태로, 역대 최장 기간을 경신하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10월 코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코스피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 이미지.

스피가 약세를 보이고, 글로벌 증시 대비 유독 약한 것은 실적시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10월 말 3분기 실적 시즌 정점을 통과하기 때문에 실적 결과에 따른 등락을 감안하더라도 불안 심리 완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증시의 다수 업종들이 실적 불

확실성을 상당부분 선반영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이번 주에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미국 빅테크 기업, 국내 대표 기업들의 호실적 기대감이 증시 반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는 29일(현지시간) 알파벳

과 AMD, 30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스, 31일에는 애플과 아마존 등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내달 14일에 예정돼 있다. 미국 증시 내 시가총액 1위인 애플과 3위인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M7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는 것이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 23일 장 마감 이후 3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직후였던 24일 전 거래일보다 21.92% 급등했다.

국내 증시에서도 지난 24일 SK하이닉스가 시장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20만닉스’로 복귀했다. 오는 31일에는 삼성전자의 3분기 확정 실적 발표 등이 예정돼 있다.

박석현 우리은행 연구원은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빅테크 실적 발표가 집중될 예정”이라며 “관련 기업들의 향후 실적 가이던스와 자본지출 계획 변화에 따라 한국과 미국 반도체 주가 방향성이 결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대통령 선거 불확실성에 따른 금리 상승과 미-중 분쟁 우려가 변수로 작용한다고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세금 인하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재정 확대가 불가피해 국제 금리 상승을 압박할 수 있다”며 “더불어 미국과 중국의 분쟁 격화 위험은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경제에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미국 핵심 경제 지표들이 양호하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다음주는 미국 3분기 국내총생산(GDP), 9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10월 고용 등 핵심 경제지표들이 발표돼 미국 경제에 대한 양호한 전망이 이어지는 구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경기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3분기 ‘깜짝실적’ 발표... 모건스탠리 “우리가 틀렸다”

metro 관심종목 SK하이닉스

매출 17.5조, 영업이익 7조 기록
분기 최고실적... 매출 전년비 94% ↑
모건스탠리 반성문·목표주가 상향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자 ‘반도체 겨울론’을 제기했던 모건스탠리를 비롯해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목표주가를 줄임향하고 있다. 주가도 실적 기대감 지속과 함께 20만원대로 복귀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21~25일) SK하이닉스의 주가가 7.31% 오르면서 ‘20만닉스’를 되찾았다.

올해 3분기 높은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모여진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지난 24일 SK하이닉스는 올해 3분기 매출 17조5731억원, 영업이익 7조300억원을 기록하면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 예상치는 매출 18조370억원, 영업이익 6조7628억원 수준이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분기 중 최고 실적이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94% 급증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 발표되자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특히 지

난달 15일 보고서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looms)’를 통해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과잉을 전망했던 모건스탠리도 일종의 반성문과 함께 목표주가를 올려잡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손 킴 모건스탠리 연구원은 SK하이닉스에 대해 “우리의 단기 전망이 틀렸다”고 설명했다. 당시 모건스탠리는 삼성전자는 기존 10만5000원에서 7만6000원(-28%)으로, SK하이닉스는 26만원에서 12만원(-54%)으로 목표주가를 크게 내렸다.

다만 장기적으로 SK하이닉스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기존 12만원에 13만원으로 소폭 상향했다.

그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찍었다는 판단은 변함이 없다”며 투자

의견 ‘비중 축소(Underweight)’를 유지했다. 마지막 거래일 기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20만1000원이다.

반면, 여타 증권사에서는 최대 33만원의 목표가가 제시됐다. 외국계인 씨티은행은 목표가를 기존 31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외에도 ▲IBK투자증권 30만원 ▲유진투자증권 28만원 ▲미래에셋증권 27만원 ▲NH투자증권 26만원 ▲흥국증권 26만원 ▲유안타증권 26만원 ▲BNK투자증권 25만원 ▲하나증권 24만원 ▲신영증권 24만원 등이 제시됐다.

김운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는 비트그로스(Bit Growth), 평균판매단가(ASP)에 있어서 경쟁업체들과 차별화돼 있고, 이러한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오는 4분기 디램(DRAM) 매출액은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포함한 그래픽 비중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현재 주가에 대해서는 실적 대비 저평가 국면에 있어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내린 증권사도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이후였던 지난 25일 기준 28만원이었던 목표주가를 26만원으로 하향했다.

김광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업황 둔화 구간에서 동사가 보유한 HBM 시장 주도권은 오히려 지속 부각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내년 업계 수요 성장은 전통 수요처의 부진으로 기존 예상 대비 둔화 되는 반면, 공급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가격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코스콤,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으로 긍정적 조직문화 형성

여의도 한강공원 ‘도시정원 조성’ 행사
신입사원 연수과정 사회공헌활동 포함

코스콤이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다양한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을 기획·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 성취감과 소속감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목표다.

코스콤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도시정원 조성’ 행사에 참여해 코스콤의 후원으로 조성된 정원의 식재 활동 및 제작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시 주최로 열렸으며 코스콤 임직원을 포함한 시민 1000여명이 동참해 한강공원에 꽃과 나무를 심었다. 앞서 이달 17일에도 코스콤 부산센터 직원들이 부산시 동구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해 동구 내 위치한 친수



코스콤이 신입직원들과 봉사활동을 실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스콤

공원 및 인근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코스콤은 임직원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본부별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IT인프라본부가 안양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책걸상·책장 등 가구를 직접 제작해 전달

했으며, 6월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코스콤 경영전략본부 직원들이 현충원에서 묘역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신입사원 연수과정에 사회공헌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코스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입사원들이 소속감과 사회적 책임을 상기시키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지난 8월 신입사원들은 독서 소의 아동을 위한 동화책 오디오북 녹음 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앞서 2월에 입사한 20여명의 신입사원들도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점자촉각책 제작 활동을 하고, 제작된 책과 교구를 시각장애 아동들에게 전달했다.

더불어 코스콤은 임직원들의 취미와 봉사를 결합한 동호회 봉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환경의 달을 맞이해 코스콤 내 곳곳에 동호회인 ‘꽃담’과 연계해 나눔을 실천했다. 당시 동호회원들이 직접 식재한 300여 개의 공기정화 식물 화분을 영등포구 내 사회복지 시설 및 복지 대상 가정으로 지원했다.

윤창현 코스콤 사장은 “현대 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과 지역사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코스콤은 앞으로도 다양한 직원참여형 사회공헌을 기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업비트 주문취소 접수 기능 추가

업비트는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실험실’에 주문취소 접수 기능 2종을 추가했다고 27일 밝혔다.

블록체인 및 핀테크전문기업 두나무는 업비트에 실험실 기능을 탑재, 정식 출시되지 않은 새로운 기능들을 시범적으로 공개해 이용자들이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비트 실험실은 업비트 ‘더보기’ 탭을 통해 접근 가능하며 이용자들이 원하는 기능을 선택해 활성화할 수 있다.

실험실에 이번에 추가된 기능은 ‘간편 주문취소’와 ‘바로 주문취소’로 이용자들이 더욱 간편하게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접수 절차를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주문취소·접수 기능은 업비트 모바일 앱 최신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실험실’에서 해당 기능을 활성화하면 이용할 수 있다.

/신하은 기자

세계 100대 유니콘 중 플랫폼사 절반... “韓 진출 대비해야”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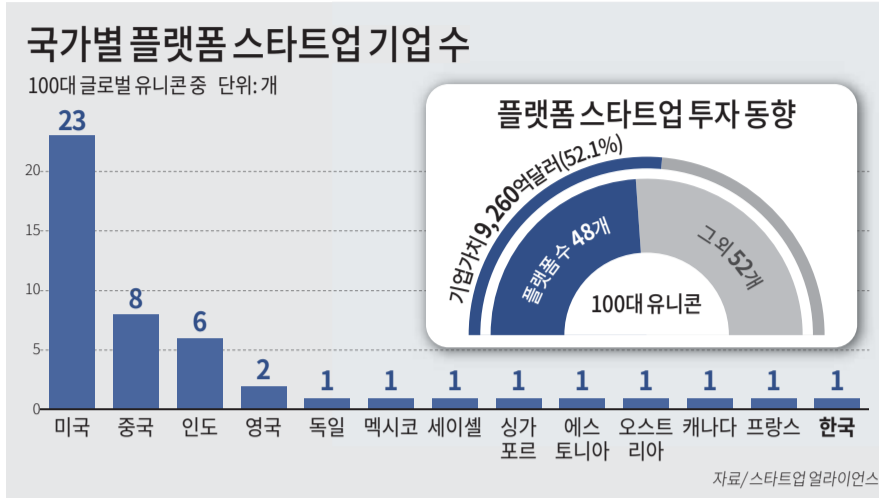
플랫폼사 48곳, 기업가치 9260억弗
美 23개, 中 8개... 한국 1개 불과

“플랫폼 비즈니스, 국경 한계 없어
국내 법 지원 강화, 경쟁력 키워야”

글로벌 ‘100대 유니콘’ 중 플랫폼 기업이 숫자나 가치 측면에서 모두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이 영위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는 국경이 없어 언제든 국내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국내 관련 산업과 토종 스타트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 따르면 최근 발간한 ‘스타트업 생태계 동향 리포트-플랫폼편’에서 100대 유니콘 기업 중 플랫폼 기업은 48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제조 분야는 4곳에 그쳤다.

또 이들 플랫폼 기업은 100대 유니콘 전체 기업가치 1조7433억 달러의 53.1%인 926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CB인사이드에 따르면 올해 9월30일 기준으로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유니콘은 1248개로,

이들의 기업가치는 3조9893억 달러 수준이다.

100대 유니콘 안에 드는 플랫폼 기업은 국가별로 미국(23개), 중국(8개), 인도(6개), 영국(2개) 순이었다. 한국을 비롯한 독일, 멕시코, 세이셸,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는 1개씩이 있다.

산업별로는 금융 서비스를 영위하는 플랫폼 유니콘이 13개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소비자&리테일(11개), 엔터프라이즈 기술(10개), 미디어&엔터(8개), 제조(4개), 헬스케어(2개) 순이었다.

보고서는 “플랫폼 비즈니스는 국경의 한계가 없어 전 세계의 경쟁력있는 플랫폼들이 언제든 한국에 진출할 수 있다”면서 “글로벌 유니콘 플랫폼이 다수 존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플랫폼 시장은 소수의 기업이 독점하는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국경이 없는 만큼 국내 시장에서도 국내 플랫폼사, 해외 플랫폼사간 경쟁은 앞으로도 더욱 치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관계자는 “인터넷 소매업으로 대변되는 국내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이 글로벌 대비 높은 반면, 법적 지원 부문은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

어진다는 점에서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통해 한국 시장에 진출할 해외 사업자 대비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글로벌 시장 도전을 위한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위스 국제경제개발원(IMD)이 발표한 ‘2023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은 64개국 가운데 6위를 차지했다.

IMD의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는 지식, 기술, 미래준비도 부문에서 국가별 디지털 경쟁력 수준을 평가·측정한다.

평가 결과 한국은 미래 준비도에서 1위인 반면 지식은 10위, 기술은 12위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기술 분야에서 규제가 26위, 자본이 24위를 기록한 가운데 규제 요인 중 기술 개발 및 적용에 대한 법적 지원은 52위로 최하위권이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해외진출 적극 지원

오스트리아서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전세계 71개국서 300여개 기업 참여

중기중앙회가 전세계 한인경제인들과 힘을 모아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오는 29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막하는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고 27일 밝혔다.

세계한인경제인대회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윅타) 소속 전세계 71개국, 150여개 지회의 한상경제인들이 모이는 행사다.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올해 28회 대회는 유럽 비즈니스 중심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300여개 기업, 376개 부스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진다.

중기중앙회의 이번 세계한인경제인



대회 참여는 지난 5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4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과 한상기업들이 힘을 합쳐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응원하는 ‘글로벌 윈윈호출항식’ 이후 월드윅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사진)은 이번 행사에서 명예대회장을 맡게 됐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행사에서 ‘KBIZ관’을 설치하고 해외에서 인기 있는 품목을 엄선해 우수 중소기업 25개사의 제품을 선보이며 한국 문화와 중소기업 제품을 현지에서 홍보한다. 전시상담회는 사흘간 열리며 현지에서 K-뷰티, K-푸드 등으로 구성된 KBIZ관에는 다양한 현지 바이어와 참관

객이 방문해 한국 중소기업 제품을 널리 알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 대한민국의 수출액이 역대 최고인 7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에는 프랑스를 제쳤고, 하반기에는 이탈리아를 넘어서 일본과도 경쟁을 해서 이기면 ‘세계 5위까지’도 가능하다는 기쁜 소식이 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노력했고 전 세계 곳곳에서 숨은 영웅인 한인경제인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지의 한인경제인들을 대한민국의 민간 외교관이라고 생각한다. 현지에서 쌓아온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800만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영업사원이 돼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한국벤처투자, 벤처생태계 발전 공로자 포상

‘Korea VC Awards’ 포상 접수

한국벤처투자가 혁신 벤처생태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Korea VC Awards 2024’ 포상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27일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Korea VC Awards 2024’는 2010년에 시작해 올해 15회를 맞이하는 행사로, 혁신 벤처생태계 발전에 기여한 모태펀드 주요 출자자(LP), 벤처캐피탈(VC) 등에 시상하고, 네트워킹을 주선하는 화합의

장이다.

포상 분야는 ▲올해의 VC ▲최우수 심사역 ▲최우수 펀드 ▲최우수 관리인력 ▲올해의 투자기업의 5개 부문으로, 심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상,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표창 등 12 점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의 VC’와 ‘최우수 심사역’ 분야 수상자에게는 출자확약서(LOC), 출자자의향서(LOI) 미이행에 따른 모태펀드 출자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인센티브를 늘렸다. /김승호 기자



대동이 튀르키예에서 로드쇼를 열고 카이오티 브랜드를 공식 런칭하는 동시에 딜러 모집을 시작했다.

대동, 튀르키예 중심 유럽 추가공략 나서

콘야 농업 박람회서 ‘카이오티’ 런칭

대동이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유럽 추가 공략에 나선다. 대동은 올해 상반기에 브루사(Brusa) 전시회, 아그로 엑스포(AGRO EXPO) 등과 함께 튀르키예 3대 농업 박람회 중 하나인 ‘2024 콘야 농업 박람회 (Konya Agriculture 2024)’에 참가해 ‘카이오티(KIOTTI)’ 브랜드를 공식 런칭하고 딜러 모집을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튀르키예는 트랙터 판매량 기준으로 세계 4위 시장으로, 지난 2020년 약 5만 4000대에서 2022년에는 약 6만8000대

로 25%가량 판매가 늘었다. 아울러 올해부터 30년까지 연평균 7.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동은 관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지난해 말 튀르키예 아탈(Aral) 그룹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에 약 3500억원 규모의 트랙터(20~140마력)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펼치고 있다.

대동은 카이오티의 빠른 현지 시장 진입을 위해 강점인 제품 품질과 성능에 대한 입소문 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 카이오티 로드쇼를 이달 4일과 5일 이틀간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와 농업 핵심도시 콘야 지역에서 진행했다. /김승호 기자

네이버 D2SF, 美 실리콘밸리서 ‘밋업’

북미 스타트업 투자유치 나서

네이버 D2SF가 24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현지 투자자 및 북미 스타트업과 만나는 ‘밋업(meet up)’을 가졌다. 밋업은 투자자 유치 및 홍보, 아이템 설명, 토론회 및 Q&A를 갖는 자리다.

27일 네이버에 따르면 D2SF는 네이버의 CV(Corporate Venturing, 기업벤처링)를 목표로 2015년 출범 이후 110개 초기 기술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해왔다. 투자한 스타트업을 포함해 지금까지 1700여 팀의 스타트업과 네이버의 각 조직을 연결했고, 210여 건의 협력 아젠다 도출했다.

이번 밋업을 발판 삼아 네이버 D2SF는 북미 현지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에 본격 나서 네이버의 글로벌 비즈니스

및 기술 전략의 시너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현지 기업·투자자·창업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북미 스타트업의 아시아 진출, 한국 스타트업의 북미 진출을 적극 도움으로써 스타트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한 교두보 역할에 나선 방침이다.

네이버 D2SF 양상환 센터장은 “AI, 로봇틱스 등 다양한 기술 도메인에서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더욱이 보수적인 시장 환경이 지속되면서 국내 기술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은 필수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지금까지 네이버가 만들어온 글로벌 사업 및 기술 성과를 토대로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국경을 뛰어넘어 네이버와 스타트업의 협업 시너지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GBA코리아와 수출 지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장애인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추가 지원에 나선다.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사단법인 GBA코리아와 ‘장애인기업 수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기업지원센터는 시장개척단, 컨설팅 등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GBA코리아와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글로벌 역량과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BA는 65개국 CEO·외교관·상무관을 회원으로 보유하고 비즈니스 매칭데이 등 다양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75개 기업서 임금체불 174억 적발 75억 즉시 청산, 근로자 보호 강화

고용부, 상습 체불 사업장 강력 단속
48개 노동청, 98개 기업 대상 실시
14개소 상습체불 사업장 사법처리
건설업 대상 익명제보 앱 연동 확대

고용노동부가 75개 기업에서 174억 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하고, 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14개소를 즉시 사법처리했다. 또한, 적발된 체불임금 중 75억 원은 감독 기간 중 즉시 청산됐다.

고용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재직 근로자 익명제보 기획감독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48개 고용노동청(지청)이 9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올해 초부터 5000여 명이 넘는 근로자 임금 59억원이 체불된 A기업은 매월 약 20억원의 체불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기업의 대표는 체불임금 청산보다는 기부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에 관할 지방노동청은 해당 기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금리 상품 특판기간 등 실제 연장근로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하게 하거나 신청해도 반려하는 등 '공짜노동'을 상습적으로 강요, 연장수당 등 1억1300만원을 체불한 B축협 이사장,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 등 1억8500만원을 체불해 시정지시를 했으나 불응한 C제조업체 대표 등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반하거나 청산 의지가 없는 14개소를 즉시 사법처리했다.

고용부는 적발된 임금체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경기 소재 D게임개발업체는 경영난으로 2억원을 체불하고 있었으나,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체불 사업주 용자 제도'를 활용해 전액 청산했다. 이 과정에서 3000명이 넘는 근로자의 체불 임금 75억원이 청산됐다. E기업은 광고 감소에 따라 13명에게 4000만원 체불했으나, 시정지시를 통해 모회사와 주주들의 자금 출연으로 전액 청산했다. F제조업체의 경우 판매처 확보 어려움으로 지난해 3월부터 1억3100만원을 체불했으나, 시정지시를 받아 재직자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전액 청산했다.

고용부는 재직 근로자의 체불이 여전히 많은 상황을 고려해 익명제보센터를 오는 28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제보 기간에는 건설근로자가 손쉽게 제보하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카드 근무관리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제보를 할 수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중대한 범죄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서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법·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에서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며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도심출몰 멧돼지, AI 기술로 막는다

국립생물자원관, 인왕산 등 현장조사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는 28일부터 도심에 출몰하는 멧돼지의 서식 특성을 수집해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한 멧돼지 이동 경로와 서식지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산악지형에 적합하게 개발한 '멧돼지 개체 탐지 기법'과 무인 카메라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멧돼지가 주로 출몰하는 서울 독립문역 인근의 인왕산과 안산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오전 7시 전후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개나리 등의 관목군락에서 32회 ▲등산로부터 직선거리 20m 이내의 경사진 지형에서 8회 확인됐다. 오후 7시에서 오전 5시 사이에는 ▲참나무군락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모습이 8회 ▲숲사잇길 ▲능선 ▲생태통로 및 나무계단 하부통로에서 이동하는 모습이 235회 촬영됐다.

특히, 야간 식별(Night Vision) 카

메라로 멧돼지의 행동 특성을 관찰한 결과 오후 10시 이후 도심과 가까운 저지대 능선까지 내려와 먹이활동을 하는 모습이 2회 포착됐고, 사람을 피해 이동하는 모습이 촬영됐다.

수집된 정보를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로 분석한 결과, 인왕산과 안산에 서식하는 멧돼지는 11m 정도의 큰 수목이 울창한 능선을 따라 이동했다. 경사가 30도 이상으로 가파른 지형의 밀집도가 높은 관목 덩굴 군락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분석 결과를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생태통로를 개선하고 등산로와 산책로의 경계 표지판 설치에 활용되는 등 멧돼지에 의한 도심지역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서민한 국립생물자원관 관장은 "무인기, 인공지능 등과 같은 첨단 기술을 이용한 야생동물 생태 분석과 정보 공개로 멧돼지에 의한 도심지역의 피해 예방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산재근로자 민영보험금 청구 간편해진다

근로복지공단, 청구서류 간소화 개시

산재근로자의 민영보험금 청구 절차가 보다 간편해진다. 근로복지공단은 내달 7일부터 산재근로자가 재해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가입한 민영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산재보험급여 증빙 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해당 보험사에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 동의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산재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사 제출용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영보험금 청구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민영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에 본인정보 제공요구 동의만 하면 된다.

이에 따라 산재근로자는 구비서류 발급·제출 불편해소 등 편익이 향상,



근로복지공단 본사 전경.

근로복지공단은 증빙서류 및 정보공개 청구 민원 대폭 감소에 따른 업무량 경감이 기대된다. 2023년 기준 보험사 제출용 보험급여지급확인원은 8만2170건, 정보공개청구는 6013건이었다. 아울러 민간 보험사의 종이 증빙서류 진위확인 부담 제거와 필요자료 신속 입수 등 사무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한용수 기자

15조 규모 중전압 직류배전망 표준화 주도

국표원, IEC총회서 기술위 신설 제안
MVDC 미래 표준화 분야 후속조치

우리나라가 중전압 직류배전망(MVDC) 기술 국제표준화를 주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1일~25일까지 영국 에든버러에서 개최된 2024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총회에 참석해 '중전압 직류배전망'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신설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IEC는 전기·전자 분야 국제표준을 관리하는 국제표준기구로, IEC 산하 기술위원회는 기술 분야별 국제표준 개발을 전담한다.

이번 신규 기술위원회 설립 제안은 지난 5월 우리나라가 제안한 중전압 직류

배전망 기술이 IEC 차원의 미래 표준화 핵심 분야로 선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를 통해 향후 직류배전망 국제표준화를 담당할 기술위원회 간사국을 수임하는데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게 됐다.

우리나라가 IEC 산하 기술위원회 신설을 제안한 건 2011년 기술위원회 119(인쇄전자), 2017년 기술위원회 124(착용형스마트기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중전압 직류배전망(MVDC: Medium Voltage Direct Current)은 고압직류 선로와 저압직류 지선을 연결하는 직류배전망으로, 수소연료전지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되는 직류를 그대로 전송할 수 있어 전력 전송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전기차 급속충전설비와 AI(인

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직류를 직접 사용하는 미래 수요 증가 대응에 용이하고, 교류 대비 배전 설비 크기 절감 및 전자파 발생이 감소하는 이점도 있다.

수소연료전지·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되는 직류를 그대로 전송할 수 있어 향후 5년 뒤 15조원 규모의 성장이 예상되는 세계 직류배전망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번 IEC 총회에서 직류배전망 기술위원회 신설 제안은 우리나라가 미래 전력인프라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정부, 2024년산 피해 벼 4.6만t 사들여

농식품부, 수매량 전년비 260% ↑

올해 정부가 사들이게 될 피해 벼의 양이 4만 톤(t)를 훌쩍 넘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호우·해충(벼멸구, 수발아) 등의 피해를 입은 벼를 전량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피해 상황을 집계한 결과, 올해 매입

희망 물량은 4만6457t(조곡 기준)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희망 물량(1만2665t)에 비해 260% 넘게 증가한 수치다.

지자체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농가의 피해 벼 수매 희망 물량을 조사했다. 매입을 위한 검사 규격안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지자체가 수집한 피해 벼 시료를 계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했다. 또 농업인단체, 지자체, 농관원 담당자의 의견 수렴 후 확정했다. 올해 검사 규격에 따르면 A급(잡정등외)의 가격 수준은 공공비축미 1등급 기준 대비 80.77%이다. 잡정등외의 B급, 잡정등외의 C급의 경우 각각 67.95%, 55.13%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최종 매입가는 12월 말 결정되는 공공비축미 수매 가격을 기준으로 확정된다. 매입 직후 중간정산금(40kg 포대당 2만5000원)을 농업인에게 지급하고 차액은 연말에 지급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국제 협력 모색

환경부, 서울이니셔티브 정책포럼

환경부는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서울 강서구 메일필드호텔에서 '유엔 환경계획(UNEP)',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제19차 서울이니셔티브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포럼은 오는 2025년 초까지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감축목표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3.0'을 주제로 개최된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엔디씨(INDC) 파트너십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아태 지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

표 및 기후 대응 정책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해 각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3.0' 제출 준비 상황과 우수 사례를 공유해 추가 협력 및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프리카, 남미 지역의 환경 관련 부처 공직자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0에는 이산화탄소 이외의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목표가 포함돼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적응 계획에 자연 기반 해법의 적극적인 통합 및 도입도 요구되는 추세다. 이와 관련 최신 정책 동향과 성공 사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세종=김대환 기자

대학로 아트포레스트 2관
2024.10.02 ~ OPENRUN

델타 보이즈

우리 노래,
지금도 하고 있어요



출연

- 서신우
- 정지호
- 장우진
- 정주호
- 최기원
- 강지훈
- 정영성
- 박주용
- 김호창
- 김도경
- 윤선근
- 박준성
- 김도후
- 김단울
- 장탁현
- 조제상
- 정휘욱
- 김소민

프로듀서 김건하 연출/각색 조성진 음악감독 강찬하 무대디자이너 정용현 조명디자이너 유은경 음향디자이너 Team Mr-J 조연출 장문희 의상/소품 장문희 총괄 콘텐츠 디자이너 안재린 포토 윤주식
주최 피아이어 기획/제작 피아이어 제작감독 김단울 제작협력 (주)필름초이스 홍보마케팅 이제이컴퍼니 예매처 인터파크 문의 02-764-9102 협찬 삼양식품

인터파크 평점
10.0점

17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 경쟁 부분 대상

21회 인디포럼
올해의 관객상



경남도, '韓 아름다운 민간정원' 7곳 선정

산림청, 이달 최종 30선 선정
5개 테마로 정원 구분해 소개
통영 '물빛소리정원' 등 뽑혀

경남도는 산림청 주관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도내 민간정원 7곳 통영 '물빛소리정원', '해솔찬 정원', '동백커피식물원', 남해 '섬이정원', 김해 '카사벨라정원', 고성 '그레이스 정원', 함양 '하미양정원'이 선정됐다.

산림청은 민간정원 우수성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지난 7월 전국 17개 시·도와 정원 분야 관련 단체 추천을 받아 신청서를 접수하고, 1차 서류평가로 선정된 45곳에 대한 현장평가를 통해 이달에 최종 30선을 선정했다.

1차 서류평가 결과 45곳 중 경남은 14곳이 선정됐고, 2차 평가에서 온라인 투표(국민 1만3356명 참여)와 전문가 현장심사를 합산한 결과로 최종 7곳이 선정된 것이다.

이번 30선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정원을 ▲자연 지형과 주변 경관을



경남 제1호 민간정원인 남해 '섬이정원'.

잘 활용한 '풍경 좋은 정원' ▲정원을 거닐며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쉽이 있는 정원' ▲전통 정원과 예술이 있는 정원 '전통과 예술 정원'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이 있는 정원 '즐거는 정원' ▲난대식물, 분재 등 특별한 볼거리(식물)가 있는 '색다른 정원' 5개 테마로 구분해 소개했다.

'풍경 좋은 정원'에는 통영시 도산면 수월리에 위치한 경남 제4호 정

원 '물빛소리정원'이 삼면이 둘러싸인 바다와 잔디 언덕으로 선정됐다.

'쉽이 있는 정원'에는 남해군 남면 평산리에 위치하여 다랭이논을 활용한 유럽식 정원의 경남 제1호 '섬이정원',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분재가 매력적인 경남 제26호 정원 '카사벨라정원'이 선정됐다.

또 '전통과 예술 정원'에는 고성군 상리면 동산리에 있는 경남 제6호 정

원인 '그레이스 정원'이 뽑혔으며, 오래된 메타세쿼이아 길과 수국길, 정원의 예쁜 돌담과 오래된 교회 건물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즐거는 정원'에는 함양군 함양읍 경남 제9호 '하미양정원'과 통영시 도산면 저산리 경남 제2호 '해솔찬 정원'이 선정됐다.

하미양정원은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정원에 와인벨리가 조성되어 있으며, 해솔찬 정원은 바다와 어우러진 동백숲길 속 정원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곳이다.

그리고 '색다른 정원'에는 통영시 도산면 원산리에 있는 경남 제20호 정원 '동백커피식물원'이 선정됐다. 4000㎡ 규모의 열대식물원으로, 커피나무, 파프리카, 바나나, 파인애플 등 다양한 종류의 열대식물이 자라고 있다.

민간정원은 일정 규모를 갖춘 법인·단체·개인이 조성한 정원을 뜻한다.

경남에는 39곳이 등록되어 운영 중이며, 연간 80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거창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거창군이 내달 1일부터 70세 이상 거창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0월부터는 거창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각 읍면사무소에서 교통카드 발급 신청을 받고 있으며 발급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발급된 교통카드는 11월 1일부터 거창군 서흥여객자동차의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때 사용된다. 이 사업은 한 달간의 시험운행을 거쳐, 12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거창(경남)=이도식 기자

울진군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 나서

울진군이 28일부터 지역 내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해주는 제도이다.

울진군에서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 3억원 특별출연하여 울진군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신청은 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함지점에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및 모바일 앱 '보증드림'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전남도 '임대농지 윈스톱 등록 협의체' 시군 확대·운영... 효율적 업무 기대

하반기 재계약 대상 우선 진행
접수 대기 시간 등 불편함 해소

전라남도가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와 협업해 전국 최초로 운영해온 '임대농지 윈스톱 등록 서비스 협의체'를 시군 단위까지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임대농지를 재계약하는 2만 필지를 대상으로 우선 진행한다.

임대농지 윈스톱 등록 서비스는 기존에 농업인이 농어촌공사와 임대계약을 한 뒤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등록 변경 사항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3곳을 직접 찾아 신고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안내 창구를 운영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경영체관리 시스템을 통해 농어촌공사가 처리한 임대 변경사항을 확인, 농가 신청이 없더라도 직접 전화(아웃콜)나 방문 등을 통해 확인하고 처리한다.

올 하반기에는 보다 효율적인 임대농지 윈스톱 등록 서비스를 위해 협의체를 시군 단위까지 확대·운영해 지역 상황에 맞는 효율적 서비스 방법을 논의해 운영한다. 직불금 신청 기간 임대계약이 집중돼 농업인 접수 대기 시간 및 기관 간 업무처리 소요 시간이 증가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등 원활한 업무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명창한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26일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린 '2024 전남 캠핑관광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주요내빈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국내외 인플루언서 '전남도 매력' 알린다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성공 조성
국내외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전남 여행 콘텐츠를 제작, 2024~2026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의 성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전남 글로벌 인플루언서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열렸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와 영암군이 이날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연 이번 행사는 인플루언서 토크콘서

트와 조나단팬사인회에 이어 전남 글로벌 인플루언서 페스티벌 어워드와 케이팝 콘서트로 진행됐다.

특히 인플루언서 토크콘서트에선 조나단, 팀브라더스, 서리요가, 흥나는캠핑, 달그닥TV 등 인기 인플루언서들이 전남의 관광 매력을 소개하고, 팬사인회도 함께 진행해 흥을 돋웠다.

/전남=양수영 기자

신안군, 전출희망 공무원 교육비 환수 검토

약 6년간 해마다 10명씩 떠나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에서 전출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교육비 환수를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자퇴생도 급증에 따른 생도 양성 비용 환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에서 참고한 내용이라고 한다.

국방부는 사관학교들이 질병·사고 등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진로를 변경하려는 저학년 생도를 제외하고 자퇴할 때는 양성 비용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의견 수렴 중이라고 했다.

신안군도 지난 2018년부터 올 해 상

반기까지 다른 자치단체로 신안을 떠나간 공무원 수가 64명에 달한다. 이는 해마다 10명씩 전출 가는 셈이다.

매년 증가 추세인 전출희망자 대부분은 저마다 사연을 가지고 있어 전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외면하기는 힘든 현실이다.

신안군의 교육비 환수를 위한 검토 내용을 보면, 신규공무원이 임용되면서 받는 공직자 소양 교육,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전출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이렇게 지원된 교육비를 환수하겠다는 내용이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울진' 만들기 박차

울진군·울진기독교교협·포항CBS '맞손'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울진군기독교연합회(회장 심상진), 포항CBS(대표 유승우)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울진 만들기' 위해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울진'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온가족이 행복한 도시조성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울진 만들기 캠페인 지역 확산, 인구정책 대군민 홍보, 여성·아동 친화도

시, 임신에서 출생·육아와 돌봄의 지역사회 공동책임 등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울진' 실현을 위한 상호협력 등에 나선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모두의 힘과 지혜가 모이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울진군기독교연합회 심상진 회장은 "아이의 울음소리는 온마을의 기쁨이다. 울진군 곳곳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저출산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대구시

구형 교통카드 교체 시 50% 할인

대구시는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과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광역 무료환승제 확대 시행에 맞춰 구형 교통카드를 전국 호환이 가능한 원패스 교통카드로 50% 할인 교환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2014년 이전에 발급된 구형 교통카드(대경교통카드)는 전국호환 교통카드가 아니어서 올해 12월 14일 개통 예정인 대구권 광역철도와 경북 일부(구미, 김천) 광역환승지역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정상이 3000원에서 1500원으로 교환하는 행사를 준비했다.

대경교통카드는 대구·경산·영천 시내버스, 대구도시철도에 한정 사용할 수 있지만 원패스교통카드는 전국 시내버스·도시철도·광역철도·시외버스 등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대구=김준환 기자 kih9@

밀양시

'범시민 인구 10만 지키기' 캠페인

밀양시가 범시민 인구 10만 지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내고장 밀양' 주소 갖기 추진위원회' 위촉장 수여 ▲10만 지키기 동참을 위한 시민 대표 결의문 낭독 ▲인구 증가 실천을 새긴 슬로건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16개 읍면동에서 구성된 내고장 밀양 주소 갖기 추진위원회는 시민이 중심이 돼 전입 독려 활동, 실거주 미 전입자 발굴 등을 펼쳐 인구 증가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다. /밀양(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올 겨울 '역대급 한파' 예고... 보온·발열 기능성 패션 경쟁

무신사 '히텐다드' 출시, 할인행사 스탠다드 브랜드 구매시 '100원'

울포유 '머스코비 다운' 제품 출시 유니클로 인공충전재 '퍼프테크' 선봬

올겨울 한파가 예상되면서 패션업계가 보온 경쟁에 나섰다. 특수 기능성 원단을 활용해 보온성을 강화하고, 착용감과 가벼움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겨울에 초강력 한파가 예고된 가운데 주요 패션 브랜드들이 겨울철 보온성을 강조한 기능성 소재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패션업계들의 보온 경쟁에는 역대급 한파가 예고된 상황이 한몫했다. 실제 기상청은 최근 3개월 기상 전망 자료를 통해 12월 기온이 평년 기온(0.1~1.7도)보다 낮고 건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무신사는 발열내의 상품인 '히



유니클로 퍼프테크 이미지(처음부터 시계방향), 울포유 머스코비 충전제 사용한 경량패딩, 무신사 히텐다드 상품 이미지. 각 사

텐다드' 출시하고 관련 할인 행사에 나섰다. 무신사에 따르면 '히텐다드' 상품에는 보온성 기능을 위해 에어로히트 소재가 사용됐다. 에어로히트 소재는



기능성 섬유 전문기업인 효성에서 제작한 섬유 소재로 빛 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하는 특수 미세알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에어로히트 섬유 소재가 평

균 2.9도부터 최대 5도까지 체온 상승 기능을 제공한다는 게 무신사 측의 설명이다.

한편, 무신사는 스탠다드 브랜드 상품을 하나 구매하면 '히텐다드' 상품을 100원에 제공하는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무신사 측 관계자는 "본격적인 겨울 날씨에 대비해 기존 발열내의 외에도 슬랙스, 데님 등의 일반 상품으로도 히텐다드 제품군을 확장해 겨울철 기능성 패션 대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전했다.

한성에프아이의 캐주얼 브랜드 '울포유' 역시 역대 한파에 대비해 머스코비 다운 소재를 활용한 제품을 선보인다. 머스코비 다운 제품은 일반적으로 러시아 머스코비 지역의 오리털 또는 거위 털을 사용한 충전제를 말한다. 머스코비 제품은 솜털이 크고 풍성해 보온성이 뛰어나고 알려져 있다.

울포유 관계자 역시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따라 가을 겨울 시즌 기능성 경

량 소재 패딩을 선보이게 됐다"며 "머스코비 소재로 보온성을 강화해 겨울 내내 활용도가 높다"고 말했다.

유니클로는 인공 충전제 '퍼프테크'를 선보이며 보온 경쟁에 뛰어 들었다. 퍼프테크는 유니클로가 직접 개발에 참여한, 겨울용 외투에 사용되는 경량 보온 소재다. 일반적인 다운 소재와 비슷한 보온 효과를 제공하지만 동물성 소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니클로는 퍼프테크 소재 출시를 기념해 TV 및 디지털, 옥외 매체 등을 통해 '공기를 품은 새로운 테크놀로지'라는 슬로건으로 퍼프테크의 기술 및 기능성, 제품을 소개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유니클로 관계자는 "보온성 강화를 위해 퍼프테크는 일본 섬유 기업 도레이의 최신 기술을 이용해 보다 많은 공기를 저장하고 독자적인 충전 구조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롯데백, 70개 브랜드 중심 '슈퍼 엘데이'

오늘부터 내달 6일까지 구매혜택 나이키·하이마트·스토케 등 참여

롯데백화점이 11월 쇼핑 대전을 앞두고 롯데백화점몰에서 '슈퍼 엘데이' 행사를 처음으로 진행한다.

11월은 중국 광군제(11월 11일)와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11월 29일) 등 전세계적으로 연중 최대 쇼핑 행사들이 집중되어 있어, 국내외 유통사들간 경쟁이 치열한 달로 꼽힌다.

이에 롯데백화점은 10월 말부터 선제적으로 연중 최대 규모의 온라인 행사를 기획해 11월 쇼핑 대전 수요 선점에 나선다. 오는 28일부터 내달 6일까지 롯데백화점몰에서 진행되는 '슈퍼 엘데이'

이'에서는 총 70개 브랜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매일 새로운 브랜드를 선정해 특가로 선보인다. 패션부터 뷰티, 가전에 이르기까지 전 상품군에 걸쳐 총 70개 인기 브랜드를 엄선하고, 10일간 매일 다른 7개 브랜드에 대해 중점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대표 참여 브랜드로는 나이키·롯데하이마트·디올·플로랄프로렌·코오롱스포츠·어그 등이 있다.

특히 행사 첫날인 28에는 나이키를 중심으로 에스티로더·메이크업포에버·노스페이스키즈·스토케·디스커버리익스페디션·강골 등 7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행사 기간(10/28~11/6) 중 전 구매

고객 대상 역대급 쇼핑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할인 혜택에 추가로 10%와 12%를 할인해주는 쿠폰을 매일 각 1매씩, 2매 제공한다. 또, 결제 카드사에 따라 10%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스탬프 및 출석 체크 이벤트 등에 참여하면 1만원 상당의 엘포인트를 쇼핑 지원금으로 증정한다.

김연주롯데백화점 e커머스부문장은 "11월 쇼핑 대전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10월 말부터 롯데백화점몰 최초로 연중 최대 행사인 '슈퍼 엘데이'를 기획했다"며 "향후 '슈퍼 엘데이'를 정례화 시킬 것과 동시에 고객 혜택 강화와 쇼핑 환경 개선 등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

현대면세점, ESG공공전시 '에이치그램'

내달 3일까지 동대문점서 진행

현대면세점이 사회적 가치를 담아낸 ESG 공공전시를 선보인다.

현대면세점은 다음달 3일까지 동대문점에서 ESG 공공전시 '에이치그램'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24 공공디자인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현대면세점과 홍익대학교 공공디자인연구소가 협력해 제작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쇼핑을 즐기는 고객들과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설치물을 선보인다.

우선, 면세점 내·외부에 고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바이오필릭 벤치와 휴게 공간을 설치한다. 바이오필릭이란 자연 요소를 활용한 디자인으로, 해당 공간을 방문하는 전 고객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단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아차, 단차' 표시 프로젝트도 진



현대면세점 동대문점 외관 전경. /현대면세점

행한다. 면세점 인근 지하도 출입구에 단차를 알리는 문구와 캐릭터 이미지를 부착해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면세점을 방문하는 고객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맞춤형 거리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 그래픽도 설치한다. 그래픽에는 면세점 근처 주요 시설까지 도보로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일반 고객·노인·임산부 등으로 나눠 표기해 고객별로 직관적인 거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최빛나 기자

BBQ "치킨과 위스키, 함께 맛 보세요"

BBQ빌리지 청계광장점서 페어링 행사

국내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그룹은 오는 11월 14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BBQ 빌리지 청계광장점'에서 치킨과 위스키를 함께 맛볼 수 있는 페어링 행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MZ세대의 새로운 음주 문화 변화에 맞춰 치킨과 위스키라는 새로운 조합을 선보이게 됐다는 것이 BBQ측의 설명이다.

특히 BBQ는 다양한 소비자 입맛에 맞춰 와일드 터키, 러셀 리저브, 아페롤 스피릿 등과 페어링한 치킨 세트 메뉴를 선보인다.

BBQ에 따르면 '와일드 터키'는 버번 위스키로, 바닐라 꿀, 건포도향을 통해 40.5도의 도수에도 부드러운 목넘김을 갖췄다. '러셀 리저브'도 버번 위스키로 빛나는 호박색이 깊고 달콤한 여운을 전달한다. '아페롤 스피릿'은 혼성주인



서울 종로에 있는 'BBQ 빌리지 청계광장점' 전경. /제너시스BBQ그룹

데, 오렌지 껍질, 바닐라, 허브 향이 더해져 달콤쌉쌀한 맛이다.

이와 함께 BBQ는 ▲자메이카 통다리 치킨 ▲황금올리브 치킨 핫팅 ▲바사칸 왕 ▲하베이크링 중 1개와 스파클링 레몬보이, 전용 글라스 2개를 함께 구성한 세트도 공개했다. 위스키와 BBQ 스파클링 음료 '레몬보이'를 조합하면 하이볼을 즐길 수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CJ제일제당 비비고 김장김치 사전예약

CJ제일제당이 오는 11월 6일까지 CJ더마켓에서 '비비고 김장김치 사전예약'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김장철을 맞아 이번 행사를 통해 제철 배추로 만드는 '비비고 제철배추 포기배추김치'와 간편하게 김장을 할 수 있는 양념소 제품 '비비고 포기김치양념'을 선보인다.

'비비고 제철배추 포기배추김치'는 맛 만든 김치의 맛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된 출고일에 생산하는 방식으로 생산 당일에도 바로 출고된다.

지난 2023년 첫 선을 보인 '비비고 포기김치양념'은 절임배추만 있으면 집에서 버무리기만 해도 누구나 손쉽게 김장김치를 담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전예약 고객들 중 김치를 구매한 고객은 11월 13일부터 22일 중에, 양념소를 구매한 고객들은 11월 7일부터 22일 중에 제품 출고일을 원하는 날짜로 지정할 수 있다.

/이청하 기자

롯데쇼핑, ESG통합평가 7년연속 '우수'

다양성·인권경영 시스템 4년째 'A+'

롯데쇼핑이 한국ESG기준원에서 주관하는 ESG 통합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종합 A등급을 획득하며 7년 연속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유통업계에서 7년 연속으로 A등급 이상을 기록한 기업은 롯데쇼핑과 연결 자회사인 롯데하이마트 뿐이다.

국내 대표적인 ESG 평가 기관인 한국ESG기준원은 지난 25일 1001개의 상장회사와 비상장 금융회사 65개사를 포함 총 106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ESG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롯데쇼핑은 환경 A, 사회 A+, 지배구조 A 등급을

기록하며 종합 A등급을 받았다.

특히 사회 분야에서 롯데쇼핑이 시행하고 있는 다양성 및 인권경영 시스템에 대한 중장기 목표를 구체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4년 연속 A+ 등급을 기록했다. 환경 부문에서는 204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 로드맵과 세부 전략 우수로 A등급을, 지배구조 분야에서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 등 운영 개선 등으로 A 등급을 획득했다.

롯데쇼핑은 2021년 11월, ESG 위원회를 신설하며 ESG 경영 원년을 선포한 이후, 2022년부터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뷰티업계, 콘서트 등 'K컬처' 융합... 혁신성장 시너지 창출

CJ그룹 내달 11월 '마마 어워즈' 아모레퍼시픽 내달 'K컬처 트렌드' 포럼 개최 **LG생건** 김지원 등 앰버서더 선정



오는 11월 '올리브영N 성수' 개점을 앞두고 '팩토리얼 성수' 빌딩 외부에 디자인 가림막이 설치됐다. /CJ올리브영.

최근 K뷰티와 K컬처의 융합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국내 뷰티 업계가 'K' 열풍 확산에 집중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국내외 K뷰티 시장에서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이날 올리브영은 오는 11월 22일 서울 성수역 4번 출구 인근 '팩토리얼 성수'에 글로벌 K뷰티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올리브영 혁신매장 1호점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매장 이름은 '올리브영N(엔) 성수'로, 올리브영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가 담겼다. 알파벳 엔(N)은 뉴(New), 넥스트(Next), 네스트(Nest), 네트워크(Network) 등의 영어 단어에서 가져왔다는 것이 올리브영 측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뉴와 넥스트는 각각 새로움과 다음이라는 뜻으로, 올리브영의 미래 지향성을 함축한다. 네스트는 둥지라는 의미인데, 올리브영은 기존에 없던 브랜드를 지속 발굴해 차세대 K뷰티 주자로 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관계를 뜻하는 네트워크는 고객 및 협력사와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의지를 표현한다.

이번 신규 매장은 총 5층 규모인데 각 층별로 팝업 현장, 해당 지점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소품을 선보이는 '올리브영 브랜드 굿즈샵', 올리브영 멤버스 고객을 위한 라운지, 입점 협력사에게 제공하는 네트워킹 공간 등으로 조성된다.

이처럼 서울 성수에 거대 전진 기지를 마련하고 있는 올리브영은 올해 국내 필수 여행지인 서울 명동, 부산, 전주, 전주 등에서도 K뷰티 특화 매장을 재단장하거나 추가했다.

이와 함께 올리브영은 최근에는 서울 용산에 위치한 본사에서 '올영라이브 전용 스튜디오'를 꾸미는 등 온라인 사업도 강화하고 있다.

CJ그룹은 식품&식품서비스, 생명공학, 물류&신유통, 엔터테인먼트&미디어 등 4대 핵심 사업군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혁신 성장을 이룬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CJ ENM의 경우 오는 11월 21일 미

국 LA 돌비씨어터에서, 11월 22일과 23일 일본 교세라 돔 오사카에서 '2024 마마 어워즈'를 개최한다. K팝 시상식으로는 최초로 세계 음악시장 1위인 미국 현지로 진출하는 것이다.

CJ ENM은 앞서 지난 9월에는 독일에서 처음으로 '케이콘 절머니 2024'를 열고 유럽 K팝 팬덤의 중심지에서 K뷰티, K푸드, K-패션 등을 함께 선보이기도 했다.

국내 대표 뷰티 기업 아모레퍼시픽도 K뷰티를 비롯한 K컬처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오는 11월 7일 서울 용산 소재 아모레퍼시픽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2025 K컬처 트렌드 포럼'을 진행한다. 올해 3회째 열리는 이번 포럼은 아모레퍼시픽재단이 주최하는 것으로, 대중음악, 드라마&예능, 웹툰, 영화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연으로

이뤄진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미 대중문화 전반을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하며 글로벌 K뷰티 소비자를 정조준해 왔다. 아모레퍼시픽의 글로벌 뷰티 브랜드 라네즈는 이달부터 방탄소년단 멤버 진과 함께 '크림 스킨' 캠페인에 집중하고 있다. 방탄소년단 진과 라네즈 '크림 스킨'은 대중문화와 뷰티 각 분야에서 독보적인 상징성을 갖춰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 라네즈 측의 설명이다.

LG생활건강도 K뷰티 사업을 전개하며 K컬처에 기반한 성장동력을 얻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주요 브랜드에서 글로벌 인기를 입증하고 있는 앰버서더들을 선정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확대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의 궁중 피부과학 고급 화장품 브랜드 '더후'는 글로벌 앰버서더로 배우 김지원을 발탁해 '덕셔리 K뷰티'에 힘을 주고 있다. 배우 김지원은 최근 종영한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호소력 있는 연기로 휘몰아치는 감정선을 표현하며 국내외 인기를 끌고 있다.

또 더마 뷰티 브랜드 피지오겔과 구강관리 브랜드 유시몰 모두 인기 배우 변우석과 협업 중이다. 배우 변우석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드라마 '전재 업고 튀어'는 드라마 인기로 OST, 원작 웹툰까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광동제약 '비타500' 구매 이벤트

추첨 통해 순금 골드바 등 증정

광동제약은 '비타500'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총 75명의 당첨자에게 순금 골드바를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비타500 오리지널 20개입 제품을 오프라인 슈퍼에서 구매하거나 50개입 제품을 광동제약 자사몰 광동상회를 비롯한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입하면 참여할 수 있다.

오프라인 이벤트 기간은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온라인 이벤트는 오는 11월 30일까지다.

당첨자에게는 등수에 따라 순금 골드바 5g~500mg을 차등 지급한다. 또 비타500제로 스프클링 20개입, 비타500 오리지널 20개입 등 푸짐한 경품도 준비됐다.

/이청하 기자

이랜드월드 스파오 강남 2호점 오픈

이랜드월드의 제조·유통 일괄(SPA) 브랜드 '스파오'가 강남 2호점을 새롭게 오픈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체 면적 190평 규모로 강남역과 신논현역 사이에 자리한 스파오 강남 2호점은 젊은 층을 타겟으로 컬래버레이션 상품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최신 인테리어와 확장된 피팅룸도 선보인다.

이랜드 스파오 관계자는 "이번 신규 매장은 캐릭터, 아티스트, 웹툰, 영화 등 다양한 IP 협업을 통해 트렌드를 선도하는 스파오만의 강점을 잘 살린 매장"이라며 "1호점과의 시너지를 통해 강남 상권을 방문하는 전 연령층의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데브시스터즈 쿠키런: 오븐브레이크 8주년 기념 업데이트

데브시스터즈가 모바일 러닝 게임 '쿠키런: 오븐브레이크'의 8주년을 기념해 '8주년! 우리만의 파이 파티!'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호박보름달이 뜨는 밤에만 구울 수 있다는 파이 레시피를 발견한 캔디콘맛 쿠키가 제빵사 키친싱크파이맛 쿠키와 함께 파이를 만드는 이야기가 소개된다.

두 쿠키 캐릭터의 여정은 타이틀 이벤트 모드 '최고의 파티 음식 서바이벌'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외에도 ▲설레는 파이 배달부 캔디콘맛 쿠키 ▲까마귀 마법사 탐험가 맛 쿠키 ▲꿈나라로의 행진 마시멜로 맛 쿠키 등 신규 쿠키와 게임 배경, 신규 젤리 테마인 '파이파티 캔디콘 젤리 세트'가 추가됐다.

/안재선 기자

2024 ESG 평가

동아쏘시오홀딩스, '가마솥 정신' 빛났다... 통합 'A+'

동아쏘시오그룹, 제주·계열사 등급 ↑ "사회적 책임 노력이 긍정적 결과로"

동아쏘시오그룹은 지주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가 한국ESG기준원의 '2024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처음으로 A+ 통합 등급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동아쏘시오그룹 계열사 전문의약품 기업 동아에스티와 원료의약품 기업 에스티팜도 A 통합 등급을 받았다.

우선 동아쏘시오홀딩스는 통합 등급에서 전년 대비 한 단계 높은 A+를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옥 전경. /동아쏘시오그룹

받았다. 환경 부문 등급은 B+에서 A로, 지배구조 부문은 A에서 A+로 각

각 향상됐다. 사회 부문은 A+ 등급을 받았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인증을 획득하며 친환경을 실천하는 경영 체계를 구축했고,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주주환원정책 수립, ESG위원회 설립 등으로 ESG 활동을 강화했다.

동아에스티는 4년 연속으로 통합 A 등급을 획득했는데, 환경 부문 등급이 B+에서 A로 한 등급 상승했다. 사회와 지배구조 부문은 각각 A+와 A 등급을 받았다.

에스티팜은 작년에 이어 2년 연

속 통합 A 등급을 획득했다. 사회 부문에서는 지난해 A에서 A+로 한 단계 올랐다. 에스티팜은 인권경영 중장기 목표 수립 및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 기업 경영 관련 인권이슈를 식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환경 부문은 A 등급을, 지배구조 부문은 B+ 등급을 받았다.

동아쏘시오그룹은 '가마솥 정신'과 정도경영을 기반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애경산업, 지속가능경영 체계 우수성 입증... 통합 'A'

4년 연속 통합 A 등급 기록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이 한국ESG기준원에서 실시한 '2024년 ESG 평가'에서 '통합 A 등급'을 획득하며 지속가능경영 체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애경산업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부문인 환경과 지배

구조에서 각각 A를, 사회에서 A+를 받아 지난 2021년부터 4년 연속으로 통합 A 등급을 기록하게 됐다. 각 부문별 등급은 지난해 평가와 동일했지만 환경과 지배구조 점수가 전년 대비 향상됐다.

애경산업에 따르면 환경 부문에서 환경친화적 제품 출시, 화학물질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 등이 높은 평가

를 받았다. 자원 선순환에 중점을 두고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는 것이 애경산업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애경산업은 사회 부문에서는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사회 공헌 등 상생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전문성

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전담 조직 운영, ESG위원회 활성화 등에서 점수를 얻었다.

이밖에 애경산업은 지난 13년간 서울시 취약계층을 위해 누적 483억원 상당의 자사 제품을 기부하는 등 나눔 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올해 1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중장기 배당 정책 수립 등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도 강화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패스트무비 등 리뷰 콘텐츠 제작자는 긴장해야



LG CNS, '최적화 그랜드 챌린지' 성료

LG CNS는 5개월간 진행된 '최적화 그랜드 챌린지 2024'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총 378개팀(827명)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LG CNS 현신균 대표(왼쪽)가 '최적화 그랜드 챌린지 2024'에서 대상을 수상한 서울대학교 'DMS'팀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LG CNS



에코프로이엠,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

에코프로이엠은 포항캠퍼스 본사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패 수여식'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왼쪽부터)에코프로이엠 전영배 사업지원팀장과 대구지방보훈청 김말순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에코프로



한솔제지, 준법경영 국제표준 'ISO 37301' 획득

한솔제지가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준법경영 관련 국제 표준인 'ISO 37301' (규범준수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솔제지 한철규 대표(왼쪽)가 한국경영인증원 황은주 대표로부터 인증서를 받고 있다. /한솔제지



가스안전공사, 초등학생 대상 백일장 대회 개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5일 충북혁신도시에 위치한 본사 체육관에서 충북혁신도시 인근 초등학생 약 100명을 초청해 어린이 가스안전 백일장 대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에게 가스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글짓기 대회와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가스안전공사



박상규 중앙대 총장, '안성천 쓰담달리기' 행사

중앙대학교는 24일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다빈치캠퍼스 인근 안성천 일대에서 개최한 '총장님과 함께하는 안성천 쓰담달리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규 총장과 이형한 다빈치캠퍼스 부총장을 비롯한 중앙대 교직원들과 학생 대표자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안성천 일대를 돌며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중앙대학교



박 상 오 변호사의 콘텐츠 법률 산책

바쁜 현대인들의 일상에서 짧은 시간에 자극적으로 즐길 수 있는 '숏폼(short-form)' 콘텐츠는 이제 필수불가결한 것이 됐다. 콘텐츠 소비 시간이 줄어들면서 기존의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까지도 짧은 시간 내로 요약해 끝까지 알려 주는 '패스트무비(fast movie)' 등의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패스트무비'는 한 편의 영화나 여러 회분량의 드라마 시리즈를 요약한 리뷰 영상 콘텐츠를 말하는데, 장편 또는 장시간의 콘텐츠를 핵심만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수요와 맞물려 비슷한 콘텐츠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패스트무비'는 해당 콘텐츠의 영상과 음성, 내용 등을 편집·요약해 제공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 등(복제권, 공중송신권 침해 등)을 구성하게 된다. 과거부터 '패스트무비' 등이 원저작물(요약된 영화 등)의 흥행이나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묵인되거나 어쩔 때에는 제작사 측에서 직접 패스트무비의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패스트무비'가 원저작물과 대체적 관계에 있어서 원저작자의 피해로 귀속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서 저작권자들의 적극적인 대응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제작년 동경

지방재판소가 패스트무비 제작자에게 5억엔(약 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화제가 됐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지방재판소에서는 패스트무비 제작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한 지상파 방송사가 패스트무비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제기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패스트무비'의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이상 저작권 침해로 부정하기 어렵고, 거의 대부분의 '패스트무비'는 유의미한 창작적 노력이나 변형 없이 원저작물의 핵심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이용의 목적이나 성격, 이용된 부분의 비중(거의 모든 분량), 원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등에서 공정이용 조항(저작권법 제35조의5) 등이 적용되기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무비'와 관련해 민사, 형사상의 법적조치가 이뤄지게 된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론이고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까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영화 유투버 등은 창작하는 리뷰 콘텐츠의 성격상 원저작물의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타인의 창작물을 이용하는 이상 원저작물의 저작권으로부터 이용허락 등을 받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리뷰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도 결국은 창작자이므로 창작자와 창작물의 보호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바른

LG화학, 유럽 이노베이션 센터 개소... "친환경 기술 R&D 강화"

독 프랑크푸르트서 개소식 "사업화 할 수 있는 기술 발굴"

LG화학이 탈탄소 산업 트렌드를 선도하는 유럽 시장에서 친환경 미래 기술 확보에 나섰다. LG화학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 이노베이션 센터(Europe Innovation Center) 개소식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EU(유럽연합)는 글로벌 시장에서 친환경 규제나 정책이 가장 선제적이고 강력하게 시행되는 지역이다. 올해부터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감축이 의무화됐고, 2030년부터 과일 등의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지 전면 금지된다. 또 배터리법 시행으로 폐배터리 수거 규모가 오는 2025년



LG화학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인에서 유럽 이노베이션 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바이오소재기술2TFT 강동균 수석연구위원, CTO 이종구 부사장, 기술기획그룹장 이호경 상무, 유럽BS담당 이충희 부문담당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G화학

약4GWh(기가와트시)에서 2040년 200GWh 규모로 약 50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유럽에서 차세대 전지소재, 바이오 소재, 전

연구소, 스위스 연방공대(ETH Zurich) 등 유럽 내 선도 연구소, 대학과 협력 관계 구축을 논의하고 있으며, 공동 연구개발부터 우수인재 확보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R&D 거점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EU 지역 내 R&D(연구 인력 규모도 2028년까지 40여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LG화학 CTO 이종구 부사장은 "LG화학은 이번 연구소 개소를 통해 친환경 기술 R&D 역량을 글로벌 선도 수준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친환경 플라스틱, 배터리 재활용 등 고성장 신산업 분야에서 빠르게 사업화 할 수 있는 기술 발굴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상명대, 반도체설계대전 '기업특별상'

상명대학교는 시스템반도체공학과 4학년 윤승재, 전정주, 이은성, 정태연 학생(지도교수 김선희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이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민국 반도체설계대전'에서 기업특별상인 'SK하이닉스'를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제25회 대한민국 반도체설계대전'은 반도체 설계 분야 대학(원)생들의 설계능력을 배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반도체 산업의 기초 경쟁력을 다지기 위해 개최됐다.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학생팀의 수상작품은 '샘플링 기법 기반의 배터리 SoC 추정을 위한 확장 칼만 필터'로 고정소수점 연산, 파이 프라이닝, 병렬 처리, 그리고 샘플링 기법을 활용해 SoC(System on Chip: 시스템온칩) 추정 모듈의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최적화된 하드웨어를 설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상명대 수상작품은 전기차 배터리 과충전에 의한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과충전 예방 SoC 추정에서 기존 SW(소프트웨어)로 처리하는 것과 달리 HW(하드웨어)로 처리함으로써 실시간 추정이 가능하도록 하드웨어 최적화 과정을 구현해 전력 소모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이현진 기자 ihj@

스타벅스 "바리스타 체험해보세요"

스타벅스코리아가 오는 29일 국제비영리 청소년 교육단체 JA코리아와 손잡고 바리스타 직무 체험을 할 수 있는 'JOB(잡)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JOB 박람회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바리스타로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각 회차별 100명씩을 모집해 행사 당일 총 3회 열린다. 이번 행사는 ▲바리스타 멘토링 ▲모의면접 ▲나만의 음료 만들기 ▲커피 원두 비교 테이스팅 등 바리스타가 되기 위한 실무 프로그램에 중점을 뒀고, 이력서 사진 촬영 지원, 사회 초년생 월급 관리 노하우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JOB 박람회 참가자 모집은 오는 27일까지 JA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해당 사이트 '교육사업' 탭에 있는 신청·참여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내일 'JOB 박람회' 개최

▲최경례씨 별세, 김병철(대신증권 경영전략총괄 부사장)씨 모친상, 안보경(대신증권 압구정WM센터 차장)씨 시모상=27일, 서울아산병원장례식장 30호실, 발인 29일 오전 8시 40분. 02-3010-2000

▲이대열씨 별세, 성일용씨 남편상, 이

재학·경육·재상·영육씨 부친상, 도총회, 김기린(전 우리금융 우리은행 홍보본부장, 현 우리카드 전무)씨 장인상, 정묘영·조정숙씨 시모상 = 27일, 서울 서초구 강남성모병원장례식장 22호실(28일은 14호실), 발인 29일 오전. 02-2258-5975



이제야 나무
HAPPY
 할로윈
 룰렛 이벤트

이벤트 기간 2024년 10월 18일(금)~10월 31일(목)

참여 방법 매장 내 이벤트 QR 찍고 이벤트 참여
(조건 : 테이블당 1회, 직원 호출 후 진행)



기술에 대한 예술의 믿음



홍경안 역
시시일각

기술의 발전이 일상을 넘어 예술의 영역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로 인해 낯선 형태의 예술이 등장하고, 예술 창작의 전통적인 개념마저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실제로 기술은 예술가들에게 창의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기술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영역 간 경계 없는 작업을 발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제아무리 빠어난 기술도 예술의 본질적인 요소인 인간의 감정, 경험, 직관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기술이 과연 예술의 미래인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에 미술관을 포함한 예술 기관에선 당대 흐름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기술과 예술의 융·복합 전시를 기획하면서도 전시점과 방향에 대한 논의도 빼놓지 않고 있다.

울산시립미술관은 오는 11월 14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예술과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특별전을 연다. 독일의 유명 작가이자 무빙 이미지 제작자인 히토 슈타이얼

(Hito Steyerl)을 포함해 스테파니 딩킨스(Stephanie Dinkins), 오묘초(Omyocho) 등 모두 20여명의 작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예술 창작의 원형에 초점을 맞춘다. 더불어 예술과 기술 융합의 시대를 4개의 섹션(기술과 예술의 만남, 예술의 본질 등)으로 나눠 조망한다. 미술관은 전시 기간 중국내외의 전문가를 초빙해 동시대 기술과 예술의 조류를 진단하는 포럼을 연계 행사로 개최한다. 포럼에선 예술가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인간적 감성을 담아낼 수 있는지 등을 짚어본다.

영등포문화재단도 11월 4일까지 융복합 기술탐구 기반 전시 '시간과 이야기(Time and Narrative)'를 선보인다. (주)농협하나로마트에서 지난 24일 개막한 해당 전시는 문화 도시 특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김신일, 비홉(BIHOP), 김동현, 최종운, L.A.B, 이지연, 소수빈, 크사베리 콤퓨터리(PL, Ksawery Komputery), 이은정 & 조혜정, 네비게이터, 티슈오피스 등 선정 작가와 기획 작가 총 18인이 함께한다.

재단 역시 포럼(11월 3일)을 통해 로컬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영등포의 지역성을 고찰한다. 영등포라는 장소를 바탕으로 기술과 예술의 동행이 인간 삶에 어떤

작용하는지를 살핀다.

기술과 예술에 관한 전시와 담론 형성을 위한 학술행사는 종종 있어 왔다. 최근만 해도 융·복합 콘텐츠의 창·제작을 중심으로 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ACT(Art & Creative Technology)를 비롯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과 기술융합지원 사업'에 의한 여러 프로그램 및 국제컨퍼런스가 펼쳐졌다. 이 밖에도 국립현대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아트센터나비 등, 기술과 예술의 창조적 가능성에 주목하고 예술의 미래를 접해보는 무대는 적지 않았다. 서울문화재단의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Unfold X 2024)도 오는 11월 7일 개막을 앞두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미술관과 기관에 소개된 전시들은 높은 기술력을 자랑할 뿐 반드시 예술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기엔 곤란한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학술 프로그램 또한 일반론에 머무르기 일쑤였다.

그럼에도 기술과 예술의 상호 작용이 서로의 한계를 확장할 것이라는 기대와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창출하리라는 믿음은 유효하다. 삶든 좋든 기술에 대한 예술의 관심은 거스를 수 없는 동시대 미술의 한 현상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미술평론가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기저수첩
서예진 (정치경제부)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중)

그런 날이 있다. 운전을 하다가 '깜빡이'도 없이 냐다 끼어드는 앞차. 양쪽으로 5m 거리에 횡단보도가 두 개나 있음에도 숨 쉬듯 무단횡단을 하는 동네 사람들. 퇴근시간 지하철에서 내가 내리기도 전에 먼저 타는 사람들. 걸어가다 먼저 부딪쳐놓고 사과 없이 '아이고'라는 한마디만 남기며 떠나는 이. 빠른 속도로 내달리다 사람을 칠 뻔 했지만 그냥 썩 하니 가버리는 전동킥보드 운전자. 이런 일을 겪고 화를 내는 날이 있다.

그럴 때 입에서는 험한 말이 튀어나온다. 그 험한 말들을 지면상으로 옮길 수는 없다. 어떤 이는 의자 다리에 새끼발가락을 찌어 소리없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아야 한다. 어떤 것은 아예 세상에 존재한 적 없는 양 소멸해야 한다.

그러니까, 저런 소소한 것이 거슬릴 때 분노 지수가 치솟는 날이 있다. 사실 이것은 별 의미 없는 분노다. 화를 낸다고 바뀌지 않아서다. 일상의 단면만 보고 쉽게 분노를 표출해버린 셈이다.

김수영 시인이 살아가던 1960년대와 다르게, 방구석에서 '거악(巨惡)'을 욕하는 것도 아주 쉬운 일이 됐다. 문제는 금방 잊는다. 그렇게 쉽게 잊는다면, 그건 '거악'인걸까 '조그만 일'인 것일까.

곧 이태원 참사 2주기가.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안타까워 하다가 2년이 지났다. 이유도 모른 채 떠난 159명의 희생자를 잠시 추모했을 뿐, 그 뒤에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알지 못한 채 2년이 지난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국회에서는 여야가 함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하지만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는 데 시간을 쓰고 있다. 조사가 시작되기까지 유족의 마음은 또 한번 타들어갈 터다.

그러나 내가 방구석에서 분개만 하며 시간을 보낸 사이, 내 마음은 그 일을 '조그만 일'로 만들어 버렸다. 159개의 우주를 소멸시킨 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았다. 조롱하는 사람을 경멸했지만, 남은 이들의 슬픔을 생각해보지 않았다. 1심 재판 결과를 보며 잠시 화를 냈을 뿐이다. 그렇게 2주기를 맞았고, 나는 또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 부끄러운 사람이 됐다.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syj@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0월 28일 (음 9월 26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사생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 48년생 그냥 지나친 사람이 은연일 수 있으니 정성으로 대하라. 60년생 창의력이 발휘되고 목표가 달성되는 날. 72년생 오지랖으로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다. 84년생 주변의 장씨가 도와주는 날.



37년생 이기적인 마음으로 실수가 따른다. 49년생 받기보다 베푸는 하루. 61년생 인사가 만사이니 주변인을 챙기는 것이. 73년생 감정을 키워나가는 것보다 이성적으로. 85년생 뒤늦은 투자는 손기능보다 역기능일 수도 있으니 심사숙고.



38년생 긍정적인 사고가 복을 부른다. 50년생 우물에서 송능 찾지 말자. 62년생 기다린 곳에서 소식이나 오나 기뻐할 수만 없다. 74년생 복권당첨을 한 번쯤은 꿈꿔보는 대목이겠으나. 86년생 망설이다가 시기를 놓치니 만회하기 어렵다.



39년생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낭패 본다. 51년생 멀리서 구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찾아라. 63년생 시간이 돈이니 시간 활용 잘하기. 75년생 사소한 일이라도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기 마련. 87년생 쉽게 얻은 재물은 쉽게 나간다.



40년생 보람 있는 일을 하게 되니 행운이 가까이. 52년생 영업 이득이 기대보다 많으니 감사한 날. 64년생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76년생 재촉하지 말고 과정을 살피는 것도 중요. 88년생 세상이 인연 아닌 것이 어디 있을까.



41년생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일이 뜻밖의 기쁨을 준다. 53년생 적당한 경쟁은 발전의 요소이다. 65년생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갖자. 77년생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격이니 일을 시작하자. 89년생 장거리 여행을 금하고 사돈거리 여행을 조심.



42년생 무관심이 회를 부르니 작은 일에도 신경 써라. 54년생 진인사대천명이니 최선을 다하라. 66년생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내야 하는 날. 78년생 산다는 것은 누구나 상처가 있게 마련. 90년생 양지가 음지 되고 음지가 양지 되는 날.



43년생 재물이 아프면 남의 살도 아픔을 알라. 55년생 예상보다 지출이 많아질 수 있다. 67년생 좋은 일은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라. 79년생 비가와도 밖에 나가지 않으면 우산이 필요 없고 발전도 없다. 91년생 집안일은 식구와 의논해서 결정.



44년생 약속이 겹칠 수 있으니 주의. 56년생 나이가 있어도 재차 조언을 구하면 해결책이 보인다. 68년생 축의금은 무리하지 말고 형편과 능력에 맞출 것. 80년생 여행을 바라다가 박쥐처럼 일이 꼬인다. 92년생 헛소문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45년생 배우자의 지지가 큰 힘이 된다. 57년생 시작이 반이니 바로 시작해보는 것이. 69년생 변화의 날이니 옷차림에 신경 써 보자. 81년생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소양이 있으면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게 된다. 93년생 기대만큼 성과가 있는 날.



46년생 가족의 화목이 우선이다. 58년생 신세 진 사람에게 빚 갚을 일이 생긴다. 70년생 다다익선이라 많을수록 좋다. 82년생 복병을 만나 힘이 들 때도 힘대로 흘러보내 주는 것이 길흉화복의 길을 따라가는 것. 94년생 천하를 얻는 하루.



47년생 건강과 행복이 나의 미래와 희망이다. 59년생 충동적 소비를 자제해야 한다. 71년생 표정 관리를 잘해야 적을 만들지 않는다. 83년생 기회가 공존하니 지금부터는 근사한 변신만이 남아있다. 95년생 학문의 결과는 분명한 결실이 있으니.



김상회의四季 일상이기도

생계에 몸과 마음이 매인 보통 사람은 심신이 지칠 때가 많다. 따라서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은 각자의 종교에 따라 기도와 같은 신행 생활을 한다. 기도의 응답이나 가피가 있다고 느껴지면 신심은 더욱 깊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언히 신심을 원망하거나 할 일이 아님이다. 바란다고 해서 넘적넘적 들어주거나 이뤄진다는 것은 기도의 원리가 아니다. 기도성취도 조건이 맞고 그 조건이 성숙된 인연에서 결과가 나온다. 그런데도 선사나 도인들은 한결같이 기도 노력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기도는 마음을 모으는 최상의 행동이고 진정한 기도는 하심이 뿌리가 됨을 알기 때문이다. 자신의 행동과 말 마음가지미 잘못 되었음을 인정하면서 참회는 시작된다. 과거 불교가 한반도에 처음 소개되었을 때는 말 그대로 귀족불교였다. 먹을 것 입을 것은 물론 명예와 권세를 지닌 이들의 지적, 정신적 만족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귀족종교로 여겨지던 불교를 민중불교로 확장한 원효대사는 진정 이 땅의 보살이었다. 당시 최고 엘리트 화랑으로서 촉망받던 원효대사가 스스로 광대와 같은 복장을 하고 불교의 이치를 노래로 만들어 부르고 다니면서 중생교화에 온몸과 마음을 다했다. "송경염불하는 중생 선신이 옹호하니 물에 들어도 안 빠지고 불에도 아니 탄다. 한 중생 초발심에 법계가 진동하고 은밀한 작은 행동 하늘에 적히도다." 출가 승려가 아닌 먹고 사느라 바쁜 평민에게 단순한 가르침을 강조하며 희망을 준 것이다. 불심 내는 그마음을 마음속에 새기면 신명이 도우시고 불보살이 지켜주시니 창성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다. 꼭 수행처에 가서 틀어앉아 좌선 수행을 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라 일상에서 마음을 잘 단속하는 것도 큰 수행실천이 되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53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42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해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1 9 2 7 6 4 9 8
2 8 7 1 9 6 6 9
9 7 6 8 5 2 2 1
6 8 2 9 1 9 7 2
4 9 2 9 8 1 2 6
2 9 1 6 2 7 9 8 2
8 6 2 1 7 2 7 9 9
5 2 9 8 6 1 7
1 9 7 6 2 8 2 2

권역별 '거점형 특화공원' 만들어 천년의 숲 등 '정원도시 서울' 조성

서남권 '국회대로 상부공원' 설치 서북권에 테마형 복합힐링공원 동북권, 도봉 서울창포공원 정비

서울시가 아름다움과 매력이 가득한 '정원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 동남권에 '거점형 특화공원'을 조성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이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특화된 거점형 공원을 권역별로 만들어 각 지역에 균형 있는 공원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서남권에는 오는 2027년까지 양천구 신월IC~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교차로 7.6km 구간엔 '국회대로 상부공원'을 설치한다. 시는 내년 12월까지 1단계 사업을 진행한다. 기존 8차로를 6차로로 줄이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목동운동장~국회의사당 3.6km 구간에 1만 6000㎡ 크기의 가로숲을 마련한다.

이어 2027년 12월까지 2단계 사업을 시행해 지하차도 상부에 쉬어가는 정원와 천년의 숲 등을 조성한다. 공원은 신월IC~목동운동장 4km 구간에 8만 7000㎡ 규모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올해 예산은 61억5700만원이며, 총사업비는 695억3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서북권 백련근린공원에는 2026년까지 테마형 복합힐링공원을 설치한다. 공원은 서대문구 흥은동과 은평구 응암동



백련근린공원.

/김현정 기자

일대에 약 78만㎡ 크기로 마련된다.

시는 ▲특화거점으로 논골마을 놀자 숲, 꿈마을 숲정기, 백련활력마당을 ▲특화시설로 은평정, 자연놀이학습센터, 산림치유센터 ▲연결지점으로 녹번역과 통일로 입구광장, 흥제천~안산 연결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44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시는 5억원을 들여 연말까지 특화거점 설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동북권 주민들을 위해 시는 도봉구 소재 서울창포원을 정비하기로 했다. 창포와 붓꽃 등이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사계절 꽃정원을 만들고, 체험형 공원 시설을 도입할 예정이다. 금년 예산은 13억원이며, 총사업비는 40억원이다. 연내 플라워가든을, 내년까지 매력

가든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동남권에서는 10만㎡ 이상 규모의 대형 공원 2곳을 개선한다. 사업 위치는 강동구 암사동 211-1번지 일대(약 11만㎡)다. 시는 암사역사공원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지난달 암사동 219-1번지를 포함 2필지 2772㎡에 대한 보상 협의 및 계약, 소유권 이전 등을 완료했다. 금년 연말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말죽근린공원도 손질한다. 사업 부지는 서초구 양재동 산20-2번지 일대(약 13만㎡)이다. 시는 총사업비 88억 1300만원을 투입해 내년 12월까지 테마정원 조성 및 복합문화시설 건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경기도, 유럽서 첨단산업 투자유치 세일즈

김동연지사, 오스트리아 등 방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에 이어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 등 유럽을 방문해 반도체 산업 글로벌 협력 강화, 첨단산업 투자유치 세일즈 행보를 이어간다.

경기도는 지난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대표단이 중부 유럽에 위치한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를 방문해 경기도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위한 교류를 놓을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5박 7일간 미국 뉴욕 등 동부지역을 방문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총 2조 1천억 원의 투자 유치를 한 바 있다.

우선 네덜란드에서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인 에이에스엠(ASM)과 에이에스엠엘(ASML)의 본사를 각각 방문해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968년 설립된 ASM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층 증착기술(ALD) 기술 시장의 리더로 연매출 3조 8천억 원 규모의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이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서울시, 법인카드 포인트 취약층에 기부

서울시는 법인카드 사용으로 쌓인 포인트를 취약계층 기부금으로 쓰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법인명의 카드는 결제 후 포인트를 개인이 적립하는 것을 금지했었고 법인명의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가맹점도 많지 않았다"며 "이에 법인명의 카드 결제 후 법인 대표 전화 번호나 아이디를 알려주면 자동으로 적립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는 포인트 적립률(1~5%)이 비교적 높고 법인명의 포인트 적립 시스템을 갖춘 가맹점과 4대 서점(교보·영풍·알라딘·예스24)에서 포인트 적립을 시범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적립된 법인명의 포인트는 반기 또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된다. 시는 지속적인 포인트 적립을 위해 실물 신용카드에 포인트 적립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서울Biz페이 앱을 통해 본 사업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고교 1곳당 의·약대 수시 71→82건 '급증'

'지역인재전형' 지방권서 더 늘어 호남권 학교당 평균 35.9건 '최대' 충청권 35.4건, 대구경북 32.8건

2025학년도 대학 의약학계열 수시 모집에서 고등학교 한 곳 당 평균 지원 건수가 82.3건을 기록했다. 특히 지방에서 해당 지역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전형 지원 건수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내신 2~3등급 학생들도 의약학계열 지원에 가세한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종로학원이 대입 수시모집에서 의대·치대·한의대·수의대·약대 등 의약학계열 지원 건수를 분석한 결과, 고교당 평균 지원 건수가 지난해 70.8건에서 올해 82.3건으로 평균 10건 넘게 늘었다. 수시모집에서 수험생은 최대 6장까지 원서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 고교당 평균 13.7명이 의약학계열에 지원한 셈이다.

이중 의대 지원자 수는 2025학년도 전국 학교당 평균 40.3건으로, 31.9건이

던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전국 6개 권역 중 해당 지역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수시 지역인재전형 지방권 고교 지원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학계열 기준으로 지방권 고교당 평균 지원 건수는 29.2건으로, 지난해(16.5건)보다 두배가량 높아졌다.

지방권 권역별로는 호남권 241개 고교에서 의약학계열에 학교 당 평균 35.9건을 지원해 전국에서 고교 당 평균 지원 건수로는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호남권 고교의 의약학계열 학교당 평균 건수는 22.0건이었다.

충청권 202개 고교에서는 수시 지역인재전형에 학교 당 평균 35.4건을 지원했다. 지난해(13.0건)보다 3배가량 늘었다. 이어 ▲대구경북권 200개 고교(학교당 평균 32.8건, 지난해 20.2건) ▲강원권 87개 고교(학교당 평균 23.3건, 지난해 13.2건) ▲부울경 299개 고교(학교당 평균 20.5건, 지난해 13.6건) ▲제주권 24개 고교(학교당 평균 8.0건, 지난해 6.3건) 순을 나타냈다.

지방권 대학 수시에서 의약학계열 지역인재전형의 학교 당 평균 지원 건수는 지역별로 35.9건에서 8.0건으로 큰 격차를 나타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지방권 의대만 두고 보더라도, 지원건수가 고교당 평균 최대 26.4건에서 최소 3.1건으로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고, 지난해 최대 9.8건에서 최소 2.2건과 비교해 보면 고교당 지원자 건수가 대단히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의약학계열 지원자의 내신 평균이 1등급대였다면, 2, 3등급대로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로 해석된다. 학교 내신은 현재 상대평가를 통해 9등급으로 나뉘며, 상위 4%가 1등급을 받고, 2등급 비율은 상위 5~11%다.

임 이사는 "일반적으로 기존에는 1등급대 학생들이 의대 수시에 지원하는 패턴이었다면, 올해는 일부 지방에선 내신 2등급대 이하 학생들도 상당수 지원에 가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현진 기자 lhj@

내년부터 '한강버스' 운항인력 키운다

서울시, 해양경찰청 등과 업무협약

서울시가 내년부터 정식으로 운영하는 '한강버스' 운항인력 양성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7일 미래한강본부에서 해양경찰청,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한강버스 사업 활성화 및 차세대 해양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강버스 등 수상교통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연구·훈련 지원 ▲차세대 해양 인재 육성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수상교통시스템 관련 정책 조안·자문 ▲수상시설·레저·교통 등 한강 안전 운항 환경 조성 ▲한강과 서해벚길 연계 등 수상 교통 체계 발전 ▲한강버스 및 한강 수상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10월 28일(월)
음력 : 9월 26일

수도권 날씨
11~20°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연천 9/20, 동두천 9/20, 가평 9/19, 파주 8/20, 서울 11/20, 양평 11/20, 인천 11/20, 수원 11/20, 용인 11/20, 평택 11/20, 백령도 12/18

해돋이 / 06:53 | 해질 / 17:38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뉴스타파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이스라엘, 가자북부 베이트 라히야 공습, 최소 22명 사망
▲쿠르스크 도착 북한군, 우크라이나 점령지 탈환에 투입될 듯...NYT / 사진 뉴스스

▲'금속조각 위험'...코카콜라, 유럽서 2800만개 음료 리콜
▲'매년 수천명 조용히 사망'...CNN이 분석한 '韓 고독사'



▲젤렌스키 "북한군 투입 가능성"에 유엔 사무총장 키우방문 취소시켜 / 사진 뉴스스
▲사우디, 세계 최대 건물 '무카브' 착공...큐브 모양



역대급 한파 예고
보온 기능성
패션 경쟁
L1



Life

뷰티업계
콘서트 등
K컬처 융합
L2



“상쾌한 아침 여는 신선한 메뉴… 커피·푸드에 진심 담았죠”



새벽을 여는 사람들

팀홀튼

정민우 운영팀장

빠른 정보로 승부하는 금융의 중심지 '여의도 증권가'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출근 시간대를 기록한 지역이다. 이른 아침부터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회사원들에게 '커피 수혈'은 필수다.

팀홀튼(Tim Hortons) 여의도TP타워점은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새벽부터 향기로운 커피를 내리고 든든한 푸드 메뉴를 준비한다. '올웨이즈 프레쉬(Always Fresh)'라는 철학 아래 주문 즉시 조리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팀홀튼은 푸드에 진심만큼 매장 내에 키친도 갖추고 있다.

팀홀튼 여의도TP타워점에서 정민우 팀홀튼 운영팀장을 만나 매장 운영 상황과 대표 메뉴, 팀홀튼만의 특징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와 비교해 훨씬 일찍부터 출근하는 걸로 알고 있다.

“대다수 카페가 9시 전후에 문을 여는 반면, 팀홀튼 직원들은 6시까지 출근해 오픈 준비를 하고, 7시부터 카페 운영에 돌입한다. 보통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OEM으로 생산된 샌드위치나 도넛을 데워서 판매하지만, 우리는 샌드위치 주문이 들어오면 그 즉시 만들어 제공하고, 도넛도 자체적으로 생산하다보니 재료 준비까지 철저히 해야한다. 빵도 오븐에서 직접 굽고, 그 안에 들어가는 야채, 메이플 스프레드(버터), 치즈 등의 재료들은 동선에 맞춰 준비해놓는다. 그렇다보니 일찍 출근할 수밖에 없고, 오픈 초기에는 5시에 출근했었다. 현재는 일에 익숙해지면서 한시간 늦춘 6시에 출근하며, 오전 근무 직원은 최소 3명이다.”

-팀홀튼 시그니처 도넛을 소개해달라.

“캐나다 여행 경험이 있거나 추억이 있는 분들은 글로벌 메뉴인 ‘애플프리티어 도넛’ ‘메이플딤 도넛’ ‘보스톤크림 도넛’을 주문하는 편이고, 기본적으로는 ‘허니 글레이즈드 도넛’이 호불호없이 잘 팔린다. 그리고 8월부터 선보인 ‘허니크롤러’가 현재는 가장 압도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매장에서 도넛을 오전, 오후 나눠서 생산하는데, 보통은 1~2주간 도넛 판매량 데이터를 분석해 오늘의 예상 판매량을 추측해 생산한다. 오전에 만든 도넛은 8시간이 지나면 폐기하기 때문에 오후 1~2시에는 저녁까지 판매할 도넛을 다시 만든다. 오픈 초기에는 판매 데이터가 없어서 폐기량이 많았지만, 운영한 지 1년이 되어가다보니 폐기량이 현저히 줄었다.”

-다른 곳에서는 시그니처 핫샌드위치 ‘멜트’를 판매하며 타 커피 프랜차이즈와 차별화를 꾀했는데…

“프랜차이즈가 아니더라도 많은 개인 카페에서 베이커리 메뉴를 판매한다. 그럼에도 팀홀튼만의 차별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멜트(Melt)’다. 우리는 다른 카페와 달리 쇼케이스에 샌드위치가 진열되어 있지 않다. 매장에 키친을 보유하고 있어 주문이 들어오는 즉



정민우 팀홀튼 운영팀장이 (메트로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팀홀튼 직원이 오븐에서 도넛을 구워내고 있다.



팀홀튼 직원이 핫샌드위치 ‘멜트’를 만들고 있다.



“가 ‘1위’ 커피 브랜드, 국내서 이름 알려 모든 푸드 자체 생산… 이른 아침 오픈

갓 만든 도넛·핫 샌드위치로 ‘차별화’ 매장에서 캐나다 현지 감성 느낄 수 있어

매년 5월, ‘스마일쿠키’ 판매액 기부 소비자 피드백 받아… 의견 수용·개선

시 오븐을 사용해 메뉴를 조리하기 때문이다. 갓 구운 따뜻한 샌드위치와 신선한 도넛을 맛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바쁜 점심 시간대에 주문이 몰리면 시간이 살짝 지체되기는 하지만, 조리도구 배치와 동선을 간소화해 크게 문제된 적은 없다. 매장 직원들 모두 레시피를 숙지하고, 이론부터 실습교육까지 이수한다. 팀홀튼이 글로벌 프랜차이즈이다 보니 동일한 직원 교육 시스템이 이뤄진다.”

-캐나다에서 팀홀튼은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할 정도로 가성비로 유명한 카페다. 그만큼 접근성도 좋고, 가격도 착하다는 의미 일텐데 국내에서는 어떤 포지셔닝을 갖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No.1커피 브랜드이지만,

이미 포화 상태인 한국 커피 시장에서 점유율을 넓히기란 쉽지 않다. 지난해 12월 국내에 진출했으며, 커피와 도넛 뿐 아니라 캐나다 현지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를 판매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빠르게 지점을 늘리며 국내 소비자들에게 이름을 알리고 있다. 우리는 ‘Always Fresh한 푸드 카페’ 이미지로 접근하고 있다. 계절별로 메뉴에 변화를 주고 있고, ‘가정의 달’이 있는 5월에는 ‘스마일쿠키’를 판매한다. 그 수익금은 전부 소외계층에 기부한다. 원두는 100% 아라비카 원두를 사용하며, 커피 감별사들이 매번 커피 로스팅할 때마다 심사를 한다. 전세계 동일한 맛을 낼 수 있도록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국내 론칭 후 현재까지 팀홀튼에 대한 소비자 평가와 향후 방향성은.

“지난해 12월 론칭 후 현재까지 이용 고객들에게 꾸준히 피드백을 받고 있다. 사소한 부분이라도 소비자들의 의견을 빠르게 수용해 개선하고 있다. 가장 많이 받은 평가는 ‘카페이지만 푸드에 대한 강점이 있다’라는 점이었으며, 팀홀튼만의 차별점임은 분명하다고 확신이 들었다. 더 많은 고객이 팀홀튼에 방문해 커피와 멜트, 도넛을 맛보시길 바란다. 캐나다 현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우승 확정 노리는 KIA, 양현종 5차전 선 발 등판…삼성, 이승현으로 반격 /사진 뉴시스
▲악재 맞은 다저스…오타니, 도루하다 윈 어깨 아탈구 부상

▲‘야마모토 호투·홍런 3방’ 다저스, W S 2차전도 승리
▲‘르브론 트리플더블’ 레이커스, NBA 개막 3연승 질주



▲‘주민규 부활포’ 울산, 동해안 더비서 포항 제압…리그 3연패 고배
▲바르셀로나, 레알마드리드 4-0 완파…시즌 첫 엘클라시코 승리 /사진 뉴시스